



4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경찰대학장 손창완 동문
경찰대학장 손창완 동문을 만나 그의 삶
의 철학과 학창시절의 추억에 대해 들어봤
다.

동대신문

금지언어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501호 2010년 (불기 2554년) 12월 6일 월요일

Cover Story 동약의 2010년을 되돌아보며

약대 유치부터 바이오대 이전 논란까지

말 많았던 경인년 ... 새해는 동국발전 위해 힘모으는 한해로



(왼쪽 위쪽부터) ▲약학대학이 위치 할 의생명과학캠퍼스 전경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해 기뻐하고 있는 축구부 선수들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A등급을 차지 한 우리대학 ▲바이오대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 모습

어느덧 다사다마(多事多忙)했던 2010년 경인년의 해도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약대 유치, 축구부 우승, 사범대 A등급 등 많은 경사가 있었다. 반면 바이오시대 대학 이전 논란, 학과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 학내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산캠에 약학대학 유치 성공

경인년 새해 우리대학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지난 2월 26일 약학대학(이하 약대) 신설대학으로 최종 선정(選定)된 20명의 정원을 배정(配定)받았다. 이어, 추가적으로 10명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약학대학 운영방안과 관련해 발표한 이후, 우리대학이 30명 수준의 정원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이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10월 서울대전(前) 약학대학장 천문우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약대 유치를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약대 1차 서류심사 통과에 이어 2차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 약대 유치를 이뤄냈다. 약대 유치에 따른 연구 실적 강화, 우수 인재 유치, 대학의 이미지 제고(提高) 등 여러 기대효과에 대해 동문과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오대학 캠퍼스 이전 논란

지난 한 학기 학내분위기 가 혼란스러웠다. 바로 바이오시스템대학(이하 바이오대)의 캠퍼스 이전 문제다. 바이오대 이전문제는 약대 유치 이후 일산의생명과학캠퍼스를 건립하면서 불거졌다. 우리대학이 제시한 일산캠퍼스 운영방안은 의과대학·한의대학·바이오대·약학

대학을 한 캠퍼스에 집중시켜 의생명과학분야 연구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바이오대 이전 문제를 두고 확실한 정보 없이 '바이오대 이전'이라는 목표만 대외적으로 제시돼, 바이오대 내부에서는 혼란(混亂)이 발생했었다. 그 후 대학본부 측은 '바이오대 이전'에 관한 설명회를 열어 바이오대의 일산캠퍼스 이전을 확정 지었다. 이에 대해 바이오대 구성원들은 구성원들과의 상의 없이 상황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바이오대 일산캠퍼스 이전 반대 시위가 총학생회의 주도 아래 학내 곳곳에서 벌어졌었다.

축구부, 10년만에 전국대회 우승

우리대학 축구부(감독=김종필)가 지난 9월 1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전국대학축구 추계연맹전'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대학 축구부는 추경광 선수의 선취점을 토대로 영남대에 2:1로 승리했다. 같은 대회에서 1981년과 2005년 준우승에 만족했던 축구부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또 축구부는 이번 우승을 통해 지난 2년간 전국대회에서 두 번이나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을 날렸다.

사범대 A등급, CPA 최다 배출

우리대학 사범대가 지난 8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데 이어, 지난 9월 2일 우리대학의 공인회계사시험(CPA) 최종합격자가 역대 최대인 총 36명인 것으로 집계(集計)됐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

을 받은 대학들은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과 교사양성 특별과정 및 교장양성과정 설치 등 다양한 특혜(特惠)를 얻게 된다. 반대로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 재평가 받을 수 있다. B등급을 받아 평가 점수가 B등급으로 오르지 못하면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줄여야한다. 그만큼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우리대학 사범대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였다. 그 때문에 사범대 구성원은 몇 달 동안 밤샘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평가 준비에 임했다.

사범대의 A등급 평가에 이어 공인회계사 고시반도 지난해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합격자를 배출해 학내 구성원들을 기쁘게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많은 학내 구성원들은 "갈목(刮木)할만한 성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뻐했다.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윤리문화학과 학생들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사흘간 10원씩 '십시일반' 모금한 420원을 최근 학교에 기부했다. 취업률, 재학생 등 계량적 평가를 기준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학교 측에 대해 '풍자적 시위'를 한 것이다. 조승연(윤리문화학4)씨는 21일 교내 20여 곳에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총장님, 안녕하세요'란 대자보를 붙였다. 그는 대자보에 "윤리문화학과 학생이 11일부터 사흘간 10원씩 420원을 모아 본관에 납부했다. 학생은 돈 버는 주체가 아니다. 몇 년간 학과인원이 줄어 많은 돈을 준비 못했지만 총장님이 추구하는 바에 조금이나마 들어맞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 기부자가 되면 '출발'이라고 적어 학교 정책을 비교했다."

제43대 총학생회 선출

지난 12월 3일 제 43대 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권기홍(법학4)-김무성(교육3) 조가 6,763명 중 5,856표를 얻어 86.59%의 득표율로 당선(當選)된 것이다. 개표 결과 이번 총학생 선거 투표율은 51.71%로 총 6,763명의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투표의 참여한 6,763명 중 5,856명이 찬성표를 던져 86.59%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778명(11.50%)의 반대표와 129명(1.90%)의 무효표도 나왔다. 권기홍 차기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동결문제와 같은 학생들에게 있어 시급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며 "직접 발로 뛰며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제17대 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

지난 11월 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제 17대 총장 선출을 위해 출범했다. 출범이후 총추위는 지난 12월 2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총추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대상자 자격심사, 최종후보인원 및 추천방식, 후보자 소견발표 순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후보대상자 자격심사 결과, 지원자 모두 합격사유(缺格事由)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후보대상자 지원접수에 등록한 총 8명의 지원자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자진사퇴해 7명의 지원자가 후보대상자로 최종 공고됐다. 이후 총추위가 3명의 최종후보를 선출해 법인에 상정(上程)하면, 오는 14일에 개최될 257회 이사회에서 3명의 최종후보자 가운데 총장을 선임(選任)하게 된다.

이자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보리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학생 여러분은 주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유수 스님
문경정토수련원 원장

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더 옳다고 판단되는 편에 섰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은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카필라국은 로하니 강 사이에 두고 이웃한 나라와 아주 독특한 관계였어요.

어느 해 굉장한 가뭄이 들어 로하니 강 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곡식은 시들어 가고 식수마저동이 날 지경이 되자, 두 나라는 강으로 나가 서로 자기네 땅에 많은 물을 대려고 했어요. 이 다툼은 마침내 군대를 동원한 전쟁 일보직전까지 이르렀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소문을 듣게 돼요. 부처님께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양쪽 얘기를 자세히 들은 후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물이 중요하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오?”
“목숨에 비하면 물은 너무나 하찮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찮은 물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면 이것은 현명한 일이지, 어리석은 일이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이 어리석다고 말했다요, 자기들이 직접 말했나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이다 아거예요. 결국 양쪽 지도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전쟁을 멈췄어요. 이것이 갈등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이었고 행위였어요. 외면하신 것도 한쪽 편에 서서 싸움을 부추긴 것도 아니었지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실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셨어요.

얼마 전 연평도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우리군 장병과 민간인이 살상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정전협정 이후 가장 큰 충돌과 사상자 발생에 충격을 넘어 상대에 대해 미운 마음, 단절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로하니강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이런 계승을 읊으셨어요.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이때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어 수다원가를 성취했다고 해요.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일 때 오는 것이예요. 여러분도 혼란한 때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비난만 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을 성장시켜보는 것은 어떤가요?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캐릭터·전형로고 공모전

꿈의 날개를 달다~
나의 생각으로 동국대의 알중을 만들어봐

1. 참가부문

구분	부문 1	부문 2
내 용	전형 명칭 ① Do Dream 학생제 전형 ② DU ACTIVE 인재 전형	동국대 입학사정관제용 전형 입학제 캐릭터
선 정	· 전형의 취지를 이해하여 심의마크 및 로고 제작 · 두 개 전형 모두 참가 가능	· 동국대 입학사정관 전형 홈페이지 홈페이지, 리플렛 등 참고하여 특색있는 캐릭터 제작

2. 참가방법

- 지원처: 입학사정관 전담팀에 관심 있는 교수님
- 접수기간: 2월 1일 ~ 1월 15일
- 접수처: 입학사정관 전담팀 홈페이지
- 시상식: 입학사정관 전담팀 홈페이지

3. 시상내역 (인원/금액)

대상 1명	상장 및 노트북 1대
관공 1명	상장 및 다림기/헤어 드라이어 1대
준공 2명	상장 및 전자책 1대
동공 3명	상장 및 정장용 헤드셋 1대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창작자 개인명의로 개인관리 사용 불가함
- 미발표된 창작물이어야 하며, 작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표절된 것으로 판명 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시상 이후에도 표절된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면 시상금 환수 및 시상금 반환 조치함
-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우리대학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됨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사정관 전담팀 홈페이지(http://do-dream.dongguk.ac.kr) 참조 또는 02-2253-3884로 문의 바람

총장후보 7명 공고...8일 소견발표

소견발표 후 최종후보자 3명 선정해 법인에 추천할 계획

우리대학 총장후보대상자로 7명이 공고(公告)됐다.

이번에 공고된 총장후보대상자는 △한태식(보광스님·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김부봉(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보현(사과대 행정학과) 교수 △심익섭(사과대 행정학과) 교수 △유덕기(사과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유석천(경영대 경영학전공) 교수 △외부인사:김희옥 헌법재판관(이상 단과대학 수)이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지난 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대상자 자격심사, 최종후보인원 및 추천방식, 후보자 소견발표 순서 및 질의응답에 대해 논의했다. 후보대상자 자격심사 결과, 지원자 모두 결격사유(缺格事由)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후보대상자 지원접수에 등록한 총 8명의 지원자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자진사퇴해 모두 7명의 지원자가 후보대상자로 최종 공고됐다. 또 최종후보인원 및 추천방식에 대한 논의 끝에 법인 이사회에 추천할 최종후보는 3명으로 확정됐다.

총추위는 후보자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마친 후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를 선출하며, 총추위 규정 12조에 따라 최종후보 3명 중 1명은 반드시 외부인사를 추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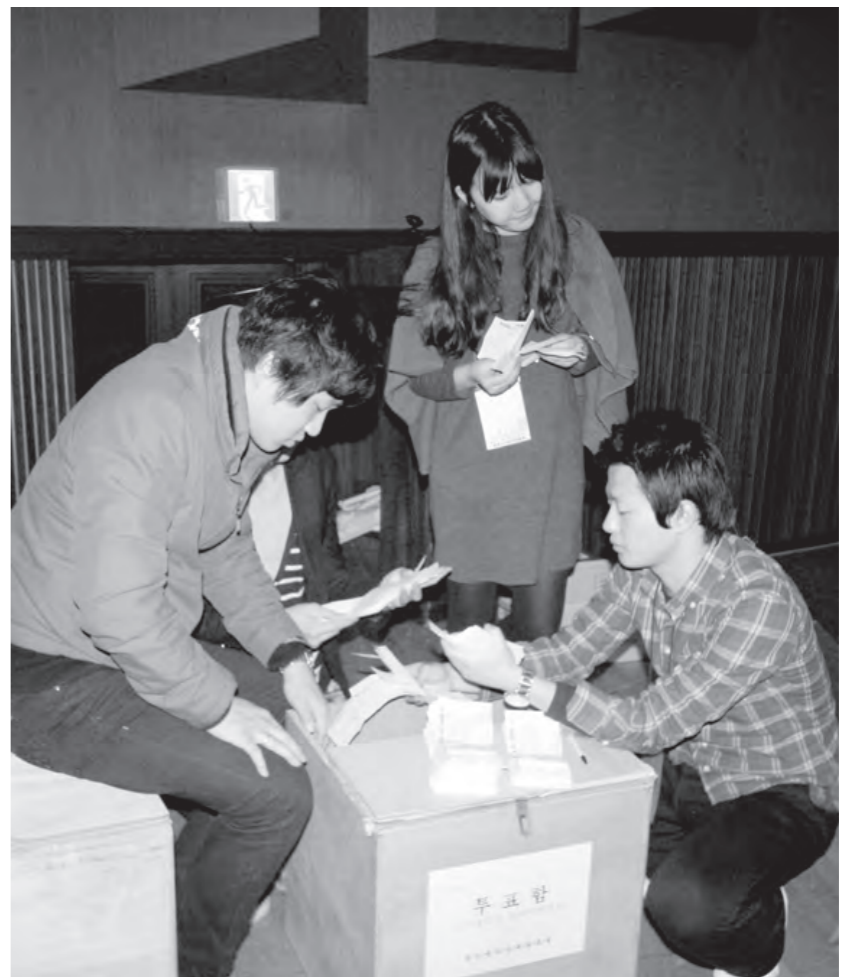
총추위가 3명의 최종후보를 선출해 법인이사회에 상정(上程)하면, 오는 14일에 개최될 257회 이사회에서 3명의 최종후보자 가운데 총장을 선임(選任)하게 된다.

한편 총추위는 오는 8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대상자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후보대상자는 주어진 20분 동안 본인의 경영계획에 관한 소견발표를 하게되며 총추위가 미리 전달한 사전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발표해야 한다. 사전질의는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어떤 재정확보 정책과 연구확대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후보대상자의 소견발표가 끝나면 10분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질의응답은 각 후보대상자마다 2명의 총추위 위원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8일 10시부터 대학본관 5층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될 후보대상자 소견발표회는 동국미디어센터(www.dongguk.in)와 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소중한 한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투표가 끝난 후 3일 자정 중앙당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개표는 새벽 2시경 끝났으며 투표율은 51.7%로 과반수를 간신히 넘겼다. 김보해 기자 boo@dongguk.edu

회전문대

동약의 대표자

○...지난 3일 동약의 학생들을 대표할 새로운 학생자치기구가 선출됐다는데.

그러나 선거참여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한 발길은 총 유권자의 51.71%에 그쳤다고. 투표자의 86.59%라는 높은 득표율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절반만 이 투표에 참여했기에 아쉽다는 A양의 후문.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절반의 투표로 만들어진 대표자들. 내년에는 동국인 100%가 만족할 수 있도록 두 배 더 뛰어들어주길!"

국위선양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붐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불에 탄 보온병을 북한이 포탄과 헛갈리는 실수 아닌 실수(?)를 한 덕에 영국의 '텔레그라프', 독일의 '디프레스'와 '포커스' 등에 등장했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답게 크나큰 국위선양을 했다는 평.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다음엔 도사락 폭탄으로 국위선양 한번 더?!"

기숙사, 일산캠퍼스 공사 순조

일산캠 산학협력관은 완공... 약학관 31% 공정률

우리대학의 발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가 학내의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서울 캠퍼스의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와 지하주차장, 일산 캠퍼스의 종합강의동 및 약학관, 백상원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먼저 서울캠퍼스의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 1층 바닥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며, 완공 시 기숙사에 751명의 인원을 수용(收容)할 수 있다.

미국 발도스타대와 교류협정 체결

내년 2학기부터 학생 5명 파견, 등록금 면제

미국 조지아 주 발도스타대의 총장이 오는 14일, 우리대학에 방문(訪問)할 예정이다.

발도스타대의 패트릭(Patrik Scholoss)총장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책임자 이반 박사(Dr. Ivan Nicolov)는 우리대학을 방문해 총장직무실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締結)하게 된다.

또 교류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향후 이뤄질 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論議)할 계획이다.

있다.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와 더불어 지하주차장 공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현재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며, 59%의 공정률을 달성했다. 완공 시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며, 45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確保)할 수 있다.

일산에서는 현재 종합강의동 및 약학관 공사가, 각각 내년 2월과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종합강의동은 각종 화장실과 외벽공사가 한창이며, 약학관은 지하

1층 철근배근 및 거푸집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종합강의동은 지상 5층, 약학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며, 현재는 3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산 산학협력관 및 한의학관이 지난 8월 완공됐다.

작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이곳은 향후 산학협력관과 한의학관, 임상시험센터 및 의대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스님들을 위한 기숙사인 백상원 신축공사도 한창이다. 서울 강북구 화계사 내에 건립되는 백상원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토목환경전시회 열려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개최

우리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의 제15회 토목환경전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원흥관 E620, E622 강의실에서 이틀간 열렸다.

시상식과 전시회, 특강으로 나누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서 '극환경 속 지하도시'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 '아시조'(7조, 조장=송상욱)가 1위를 수상했다.

12개조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 연구기획실의 박정순 실장의 특강도 함께 개최됐다.

박영석 동문, 남극횡단 탐험 도전

최단기간 남극횡단 기록 도전...SBS 다큐 제작도

박영석 동문이 우리대학의 후원을 받아 오는 16일, 최단기간 남극횡단 탐험에 도전(挑戰)한다.

우리대학은 이번 남극탐험의 협찬사로, 탐험대의 유니폼과 장비에 우리대학 로고가 부착된다. 또 탐험대가 남극점에 도달하거나 남극 횡단 성공 시, 우리대학 깃발이 게양(掲揚)될 예정이다. 전략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한국 최초 남극횡단 도전 후원을 통하여 지구환경 보호와 미래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으로서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構築)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석 동문이 탐험대장으로 나서는 '그린 원정대'는 지구 환경을 돌아보며 미래를 개척하는 한국인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남극 횡단에 도전한다. 그린 원정대의 탐험 내용은 내년 5월 중 SBS 연속 4부 다큐멘터리로 방영(放映)될 예정이다. SBS측에 따르면 이번 탐험이 성공할 시, 최단기간 남극 횡단기록(50일)을 달성하게 된다. 지난 23일 강

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한 박영석 동문은 "전세계적으로 환경이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무탄소·무화학 연료 사용으로 남극을 탐험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지수 수습기자 jis@dongguk.edu

DU ACTIVE 전형 신설

입학처, 2012년 입시부터 도입

우리대학이 2012학년도 입시부터 기존의 리더십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대신해 'DU ACTIVE 인재 전형'을 도입(導入)한다.

DU ACTIVE 인재 전형은 리더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 해결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새로운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입학사정관실의 김홍희 입학사정관은 "DU ACTIVE 인재 전형을 통해 기존의 Do Dream 특성화 전형과는 또 다른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新設) 전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세상을 바꾸는 힘 | 동국대학교 | 세상을 깨우는 이름 | UNIVERSITY

미래를 여는 큰 생각

동국 MBA

당신의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세상은 100년을 위해 세상보다 먼저 더 크게 변하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국제화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에 앞선 인재를 만드는 동국 MBA
MBA도 동국대학교를 만나면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큰 미래가 열립니다.

국제화 프로그램 •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프로그램
• 중국 Sun Yat-sen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 General MBA (전문경영인 양성)
• Culture-oriented MBA (문화예술 전문기 양성)
• Entrepreneurship MBA (혁신적 기업가 양성)
• Pharm-MBA (의·약학 전문기 양성)

동국대학교 MBA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0.12.13(월) ~ 2011.1.5(수) 09:00~19:00까지
http://mba.dongguk.edu

2011학년도 전기 특별전형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정	모집학과	모집 전공
박사	멀티미디어	영상공학, 콘텐츠디자인, 게임제작
석사	멀티미디어	영상공학, 콘텐츠디자인, 게임제작
	공연예술	연기연출, 공연제작

2. 일정 및 접수 안내
가. 원서접수: 2010.12.9(목) ~ 12.14(화)
나. 전형일: 2010.12.18(토)
다. 합격자 발표: 2010.12.24(금) (예정)
라. 문의처: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 02-2260-3763, 3764.
마. 동국대(대학원 포함) 졸업 후 6학기 이내 본 대학원 입학시 입학금 면제

영상 대학원

동국대학교 2011학년도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모바일보안전공 신입생 모집

신입생 전원 전학기(4학기) 등록금 100% 지원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100% 취업 보장
성적우수자 단기 해외연수 및 학업장려금 지원(8개월)

- 모집인원: 00명
- 모집 전공: 정보보호학과 모바일보안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11.29(월) ~ 12.15(수) 17:00까지,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필기고사, 면접
- 전형일시: 2010.12.22(수) 10:00 ~
- 합격자 발표: 2010.12.24(금) 17:00 이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정보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ai.dongguk.edu 참고

국제 정보 대학원

2011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야간) 00명

■ 입학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접수 및 서류 제출	2010.11.29(월) ~ 2010.12.24(금)	- 본 대학원 인터넷접수: 2010.11.29(월) ~ 12.24(금) / 09:00~24:00 * 인터넷접수시 입학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학사운영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10.11.29(월)~12.24(금) / 09:00~17:00 -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gslaw.dongguk.edu) 원서접수 가능 (서울 중구 필동 3가 28번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사운영실) ☎ 02)2260-3742, 3227 / Fax 02)2260-3941
전형일(면접)	2010.12.29(수) 17:00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법학관 1층)
합격자 발표	2010.12.31(금) 15:00	개별 통보

■ 학과 및 세부전공

학과	세부 전공	응시 자격
법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률실무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금융법무전공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2011년 2월 학위취득예정인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출신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 공직자우대장학, 총장장학, 교직원장학, 승려장학 등 다수 장학혜택 있음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260-3742/3227
□ 팩스 02)2260-3941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http://gslaw.dongguk.edu

법무 대학원

43대 총학, 권기홍-김무성 조 당선

투표율 51.7%, 득표율 86.5% ... 총여학생회장엔 이예림 양

제 43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開票)결과, 권기홍(법학4)·김무성(교육3) 조가 6,763명 중 5,856표(득표율 86.5%)를 얻어 당선(當選)됐다.

또, 총여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이예림(정보통신2)-이은화 조가 2,860표(득표율 89.1%)를 얻어 당선됐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 개표는 지난 3일 12시17분부터 2시 23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표결과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6,763명(투표율 51.7%)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5,856표(86.5%)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입후보한 권기홍-김무성조의 당선이 확정됐다. 개표결과 반대표는 778명(1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효표는 129명(1.90%)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여학생회 선거에서는 3,207명(투표율 54.5%)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860명(89.1%)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표는 290명(9.0%), 무효표

는 57명(1.7%)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졸업준비위원회장 선거에서는 각 단과대 회장이 투표한 결과 김동규(컴퓨터공학3) 후보가 당선됐다.

각 단과대 학생회 투표결과와 다음과 같다. △문과대=조승연(윤리문화4)-진기훈(국어국문4) 조 당선확정. 투표율 76.9%, 득표율 94.8%. △예술대=김세연(문예창작2)-최지수(불교미술3) 조 당선확정. 투표율 52%, 득표율 89.2%.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84.7%. △법과대=곽호남(법학2)-최원혁(법학2) 조 당선확정. 투표율 52.7%, 득표율 86%. △사과대=최장훈(정치외교3)-최아라(식품산업2) 조 당선확정. 투표율 52.6%, 득표율 89.2%. △경영대=황재웅(경영3)-이재희(경영학부1) 조 당선확정. 투표율 32%, 득표율 79%. △공과대=이현재(기계로봇에너지공학2)-이규호(컴퓨터공학3) 조 당선확정. 투표율 49.7%, 득표율 86.1%. △사범대=이희정(역사교육3)-남보라(국어교육3) 조 당선확정. 투표율 76.9%, 득표율 94.8%. △예술대=김세연(문예창작2)-최지수(불교미술3) 조 당선확정. 투표율 52%, 득표율 89.2%.

“만남 통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것”

제 43대 총학생회 당선자 권기홍 군 인터뷰

제 4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권기홍(법학4)·김무성(교육학3) 조가 당선됐다. 지난 3일 진행된 개표 결과 총학생회는 6,763명(51.71%) 중 5,856명(86.59%)의 찬성표를 득표했다. 이에 동대신문에서는 앞으로 그들이 이어나갈 목표와 포부에 대해 들어 봤다.

- 총학생회 선거에 당선된 소감은.

= 김무성 : 일단 총학이라는 것이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다른 수많은 단과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를 진행하며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힘을 보태준 덕분에 이렇게 당선될 수 있었다.

-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권기홍 : 학생회 활동을 진행하며 학우들의 문제제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공통의 해결 과제인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학생회와 학우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가치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다.

- 취임 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 권기홍 : 등록금 동결문제가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후 최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발로 뛰며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앞으로의 포부(抱負)를 밝히자면.

= 김무성 : 우리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만남’이다. 학생들과 동 떨어진 총학이 아닌, 그들의 생활 속을 파고들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화를 계속한다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지속적인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진정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총학이 될 것이다.

김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교수회, “새 총장은 교수회 인정해야”

총장선출 앞두고 임시총회 열어 결의안 채택

교수회가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총장 선출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採擇)했다.

정각원 법대에서 박순성(북한학과) 교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교수회 대의원·관리위원 합동회의 보고 및 결의안 채택을 주요 안건(案件)으로 다뤘다.

그동안 교수회는 교수회와 총추위의 총장후보자 검증·추천과정이 서로 모순을 이룬다며 이의(異議)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총장 선임 과정은 학내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교수회의 총장 후보자 검증·추천과정을 내세우지 않을 것을 밝혔다.

김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동대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 창간연회 및 송년회

2010년 동대신문사가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조출한 창간기념 연회 겸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0년 12월 29일(수) 18시 30분 ~ 21시 30분
2. 장 소 : 엠버서더호텔 오키다룸(19층)
3. 참가회비 : 3만원
4. 연 락 처 : 02-2260-3494~5

동대신문사 동인회장 김택근

교원인사 · 재산운영 관련안건 처리

학교법인 지난달 23일 256회 이사회 개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안건을 다룬 ‘제 256회 이사회’가 지난 달 23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개최(開催)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承認)된 사항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안건이다. 다음은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決議)된 안건이다.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경주

캠퍼스 기체 승인에 관한 사항 △기 본재산(수익용, 교육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0학년도 학교법인 산하 초·중·고교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학교법인 영석학원 기부합병 협정 약정서’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동대학술상 · 동대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갑수 군 학술상 문학상 동시 수상 눈길



우리신문이 주최하는 제 48회 동대학술상과 제 25회 동대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일 본관에서 열렸다. 학술상에서는 인문과학부문 장원(狀元)은 엄기석(사학3)군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문학상에서는 시 부문 장원 박민혁(문창3)군이, 소설 부문 장원 이세라(국문4)양, 희곡·시나리오 부문 장원 남희선(문창3)양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가작

(佳作)으로는 학술상의 인문과학부문 야에서 이갑수(문창4)군, 사회과학부문 야에서는 양정현(정외3)군, 강물결(정외3)양이 선정됐다. 또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유도규(산림자원4)군이 수상했다. 동대문학상에서는 시 부문 심혜인(인선방4)양, 소설 부문은 이갑수(문창4)군, 희곡·시나리오 부문은 김예은(문창4)양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10년 11월 25일 ~ 2010년 12월 1일

장학기금

정영대학원동창회(3,000만원), (주)이퍼블릭 코리아(200만원), 케이브리지(주)(200만원), 김경재(100만원), 방승우(50만원), 송관수(20만원), 김용조(10만원), 최대식(10만원), 윤재웅(10만원), 변해중(10만원), 김경훈(10만원), 이성업(10만원), 김재환(10만원), 유주호(10만원), 유시규(5만원), 임세득(5만원), 신성식(5만원), 박지현(5만원), 이한주(4만원), 김중식(3만원), 이경(3만원), 조성환(3만원), 함만진(3만원), 인성스님(3만원), 이승진(2.5만원), 강기영(2만원), 김영호(2만원), 차홍기(2만원), 우철희(2만원), 고학배(2만원), 강희문(2만원), 하기복(2만원), 이종하(2만원), 박형재(2만원), 박지영(2만원), 김태형(2만원), 이상익(2만원), 윤우송(2만원), 김해동(2만원), 양병수(2만원), 윤덕기(2만원), 박영희(2만원), 조원상(1만원), 장근석(1만원), 임광준(1만원), 이승규(1만원), 이낙영(1만원), 신영훈(1만원), 김정자(1만원), 박성필(1만원), 호수스님(1만원), 수민스님(1만원), 이태림(1만원), 김지나(5천원)

단위기금

김중호(150만원),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100만원), 삼성물산(주)(100만원), 최태명(5만원), 손지숙(1만원), 이승철(1만원), 윤해숙(1만원), 문희영(1만원)

특정목적기금

정각원(117만4천원), 한영옥(100만원), 이동훈(100만원), 김용대(28만원), 송동원(28만원), 정해송(28만원), 김강균(27만원), 김정은(27만원), 이병주(27만원), 권태윤(27만원), 신준우(27만원), 이승현(27만원), 홍승민(27만원), 김나나(27만원), 행정대학원(22만5천원), 유경우(20만원), 김장우(20만원), 권영자(10만원), 정승재(10만원), 서옥순(10만원), 중무로교회(10만원), 최진식(5만원), 이경선(5만원), 하경원(5만원), 배은석(5만원), 감사사(5만원), 원행스님(5만원), 정호스님(5만원), 김자년(4만원), 김해경(3만원), 삼오(3만원), 조화자(3만원), 정계훈(3만원), 최병환(5만원), 이승진(2만5천원), 김상필(2만원), 대경스님(2만원), 진병길(1만원), 보명스님(1만원), 임성길(1만원), 윤영철(1만원), 이현태(1만원), 이동욱(1만원), 최은미(1만원), 장원스님(1만원), 김재홍(1만원), 서유순(1만원), 무운스님(1만원), 최대해(1만원), 임광준(1만원), 유순화(1만원), 정진아스님(1만원), 염수현(1만원), 김구만(1만원), 원길태(1만원), 정명숙(1만원), 일휴스님(1만원), 허지인(1만원), 김효분(1만원), 이구찬(1만원), 이창호(1만원), 지락스님(1만원), 반공스님(1만원), 최은희(1만원), 홍경향(1만원), 임옥준(1만원), 천정희(1만원), 홍순지(1만원), 이정진(1만원), 김원민(1만원), 김경배(5천원), 한혜경(5천원), 이승호(5천원), 김옥희(5천원), 김명숙(5천원), 김순희(5천원), 광원(5천원), 김강희(5천원), 강현성(5천원), 강현준(5천원), 정현식(5천원), 장정숙(5천원), 윤선호(5천원), 이우영(5천원), 이태규(5천원), 서중스님(5천원), 정도행(5천원), 송미영(5천원), 김미숙(5천원), 신효철(5천원), 이예진(5천원), 김수경(5천원), 박경숙(5천원), 이승호(5천원), 최규동(5천원), 이은정(5천원), 박경호(5천원), 이금숙(5천원), 정홍태(5천원), 정원스님(5천원), 강옥모(5천원), 강순모(5천원), 채원희(5천원), 정연옥(5천원), 김미선(5천원), 이진화(3천원), 장현숙(3천원), 손명희(3천원), 성미화(3천원), 서정일(3천원), 신호갑(3천원), 주경희(3천원), 김지현(3천원), 명진스님(3천원), 박재량(3천원), 김경은(3천원), 김재홍(3천원), 박경연(3천원), 김명준(3천원), 청강스님(3천원), 장경희(3천원), 박용숙(3천원), 이정환(3천원), 이태민(3천원), 정서희(3천원), 정인석(3천원), 이희숙(3천원), 김명옥(3천원), 유필순(3천원), 김윤경(3천원), 이소임(3천원), 이은경(3천원), 성기봉(3천원), 김문식(3천원), 장대식(3천원), 류김원(3천원), 김미경(3천원), 김효순(3천원), 모규숙(3천원), 서민주(3천원), 안은진(3천원), 장예린(3천원), 이숙원(3천원), 오재민(3천원), 이

지영(3천원), 이태경(3천원), 최효순(3천원), 이주호(3천원), 민노미(3천원), 좌승민(3천원), 좌승현(3천원), 이영자(3천원), 김결(3천원), 이현옥(3천원), 전준호(3천원), 조승자(3천원), 김민영(3천원), 김정숙(3천원), 조현철(3천원), 이정훈(3천원), 공혜경(3천원), 김희자(3천원), 전인식(3천원), 김정숙(3천원), 오정원(3천원), 윤종명(3천원), 박말순(3천원), 윤도훈(3천원), 정선아(3천원), 이근홍(3천원), 이기정(3천원), 이혜선(3천원), 이선영(3천원), 김용치(3천원), 서재원(3천원), 최명화(3천원), 이창호(3천원), 조민영(3천원), 김경목(3천원), 서수연(3천원), 서정우(3천원), 김미원(3천원), 김해경(3천원), 김순이(3천원), 엄영자(3천원), 정민옥(3천원), 한정옥(3천원)

비지정발전기금

김대선(10만원), 김옥자(5만원), 우철희(3만원), 공만식(2만원), 황정일(2만원), 김미숙(2만원), 이진옥(2만원), 이재희(2만원), 강태진(1만원), 이현호(1만원), 박미진(1만원), 양병모(1만원), 윤용일(1만원), 김후곤(1만원), 위희정(1만원), 이문영(1만원), 이상훈(1만원), 박규표(1만원), 박재희(1만원), 김유정(1만원), 강병현(1만원), 강원정(1만원), 백성원(1만원), 장선교(1만원)

병원발전기금

철은스님(2만원), 임선화(5천원)

기부금 납부안내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동국대학교가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화 : 02-2260-3300, 3794-5, 8992-3
- 팩스 : 02-2260-3796
- 홈페이지 : http://love.dongguk.edu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찾아 < 13 > 경찰대 학장 손창완 동문

동국에서 배운 온화한 리더십이 인생의 밑거름

흔히들 경찰을 가리켜 민중의 지팡이라고 표현한다. 지팡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제3의 다리 역할을 한다. 이처럼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민중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0여 년간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들을 돕다가 경찰대 학장으로 부임해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는 손창완(경찰행정78졸) 동문을 만나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급한 일로 교통신호를 어기게 됐다. 벌금을 매기려는 교통경찰에게 처칠의 운전사는 “수상 각하의 차이니 비키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교통경찰은 “수상 각하를 달긴 했지만 그 분이 교통위반을 할리가 없소. 교통위반에 거 짓말까지 하다니. 내일 당장 경찰서로 출두 하시오”라고 단호히 말했다. 처칠은 이에 큰 감명(感銘)을 받아 경시총감을 불러 그 교통경찰의 일개급 특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시총감은 “경찰조직법에 그런 규정은 없으므로 특진 시킬 수가 없습니다”라며 딱 잘라 거절했다. 처칠은 흐뭇한 표정으로 “오늘은 경찰한테 두 번 당하는군”이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위 이야기에 나오는 경찰의 모습은 손창완(경찰행정78졸) 동문이 꿈꾸는 경찰의 바람직한 상(像)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를 엄정히 들이대는 공명정대한 경찰. 이런 경찰의 양성이 목표인 경찰대학에 지난 9월 손 동문이 제35대 학장으로 부임(赴任)했다. 임기 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손 동문을 만나 그의 인생과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찰상에 대해 들어봤다.

동국에서 배운 온화한 리더십

30여 년간 사건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安寧)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손창완 동문. 그러나 그의 원래 꿈은 경찰이 아니었다. 손 동문은 “대학 입학 전까지 경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동문은 우리대학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해 경찰의 체계를 몸으로 느끼며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 그는 “경찰행정학과에서는 행정적인 내용 뿐 아니라 유도, 호신술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많았다”며 “그런 수업을 들으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다른 사람보다 강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손창완 동문은

경찰대학 학장으로 부임한 이후



훌륭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본인이 받았던 훌륭한 배움을 떠올렸다. 우리대학 이황우 명예교수에게 받은 온화한 리더십이 그것이다. 손 동문은 스승인 동시에 우리대학 경찰행정학과 선배인 이황우 교수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덕분에 경찰에 대한 편견을 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학문적 가르침도 훌륭하셨지만 그에 앞서 학생들을 자상하게 보살피고 준 이황우 교수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며 “나도 이황우 교수처럼 자상한 교육자가 되고 싶다”며 경찰대 학장으로서의 포부(抱負)를 밝혔다.

하지만 그의 대학시절이 마냥 밝지는 않았다. 대학생 시절, 손 동문은 동기들이 술을 먹다 과졸소에 연행됐다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과졸소로 향했다. 다행히 친구들은 훈방(訓放)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훈방사유는 대학생들이 벌써부터 경찰이 되었다는 뜻을 품고 공부하는 것이 애석하고 불쌍해서였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경찰이 돼 경찰에 대한 인식(認識)을 바꾸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굳센 각오로 그는 경찰행정학과 학회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면학에 전력을 다했다. 손 동문은 “당시 학업에 대한 열정이 현재 나의 밑거름”이라고 당시를 추억(追憶)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찰

그렇게 경찰이 된 손창완 동문은 다른 경찰들보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그는 전북경찰청장 재임(在任) 시절 ‘미더 더 가까이, 1분 더 많이’라는 뜻의 ‘1mM 운동’을 실행했다. 경찰들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거는 낯선 모습에 사람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주민들이 ‘1mM 운동’의 취지와 진정성을 이해해 주민들과 경찰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다. 손 동문은 “주민 중심의 치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같이 경찰들에게 강조했다”며 “그 결과 주민들이 경찰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런 손 동문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이 가장 보람찬 때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을 때다. 일선에서 수사하던 시절에는 범인을 검거해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주민들을 도왔다. 또 경찰청장 시절엔 주민들을 위한 시책과 정책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는 “주민 중심, 정성 치안을 기조로 끝없이 노력했다”며 “결국에는 주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주고 마음을 표�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담소지락을 위한 피나는 노력

손 동문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담소지락(談笑之樂)이다. 이는 타인과 대화를 나누며 편히 웃는 즐거움이라는 뜻이다. 그러한 여유는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한 만족감이나 뿌듯함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맡은 일에 집중력과 열정을 가득 담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 동문은 “본인의 일에 열정을 발휘하면 비로소 담소를 통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런 여유를 즐기기가까지의 과정이 담긴 담소지락이란 말을 좋아한다”고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이어 그는 후배들에게 애교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그는 “모교가 잘 돼야 다른 우리대학 출신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동문은 후배들에게 학업적인 노력보다도 유연한 사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보듬을 수 있는 포용력”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딱딱하고 경직된 낯은 사고방식에서 탈피(脫皮)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창한 사람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모델이라고 밝힌 손창완 동문. 경찰대학의 학장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담소지락’의 마음자세로 훌륭한 경찰을 양성할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프로필

△1955년 10월 전남 장성 출생 △1974년 광주제일고 졸업 △1978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 △안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 △2003년 제58주년 경찰의 날 녹조근정훈장 △2006년 경기지방경찰청 3부장 △2008년 전남지방경찰청 차장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2010년 1월 전북지방경찰청장 △現 경찰대학 제 35대 학장

동국대학교 104년 / 불교학과 104년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귀의삼보하옵고, 2010년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문 제위께서는 무루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10년 12월 06일(월) 18시
2. 장소 : 엠버서더호텔 오키드룸(19층)
3. 참가회비 : 5만원 (부부동반 환영)
4. 연락처 : 02-2260-3835 (동국대 교수회관 120호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공동회장 홍파 · 홍영춘 합장

동국대학교 백상응원단

2010년 2학기 신입단원 2차 모집!

- 모집 대상 : 10학번 누구나
- 모집 파트 : 액션, 밴드
- 모집 시기 : ~12월 10일(금)
- 지원 방법
 - 응원단장 : 010-8937-8995
 - 응원단실 : 02-2260-3683
 - 싸이클립 : club.cyworld.com/bscheers
 - 홈페이지 : baeksang-x-y.net

※ 대학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할 신입생들! 바로 연락주세요!

동국대학교

제 4 회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2011.01.12~2011.01.14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 신청자격 :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수료생
- 신청단위 : 개인

신청 및 접수기간 : 2011.01.12(수) - 2011.01.14(금)

공모부문
- 공연예술 : 희곡 / 뮤지컬 대본
- 영상시나리오 : TV 드라마 / 영화시나리오 / 게임시나리오 / 애니메이션시나리오

제출기준 및 형태 :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11point 글자)

수상작 발표 : 2011.02.01 (화) (본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시상내용
- 대상 :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100만원 (본 대학원 입학시 장학 특전)
- 최우수 : 각 부문별 1명(총 2명) 각 50만원
- 우수 : 각 부문별 2명(총 4명) 각 30만원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작 없음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 공모신청서 및 시늬(A4 3매 이내) 1부
- 시나리오 1부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학별관 1층)
- 연락처 : 02-2260-3763, 3764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장

『철학·사상·문화』 제11호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는 2011년 1월 31일 발간되는 『철학·사상·문화』 제11호에 수록될 논문을 모집합니다. 『철학·사상·문화』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모집 대상 영역은 철학, 사상, 문화입니다.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제출 마감일 :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2. 원고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insewtdgu@gmail.com)
3. 원고 명기사항 : 투고자의 성명(한글/영문), 소속, 주소, 전화번호
4. 원고 제출 관련사항 :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ins-ewt.dongguk.edu>

심사결과 채택된 논문은 2011년 1월 31일 발간 예정인 『철학·사상·문화』 제11호에 수록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02-2260-8838) 또는 연구소 조교 박영식(019-629-16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동국 문학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⑥ '농무'의 신경림

구수한 입담으로 소외된 이들 끼안은 시인

산업화 도시화 속 시대의 주변으로 버려졌던 이들의 오감을 열어 노래한 민요시인

신경림 시인의 첫 시집 <농무>는 창작과 비평이 발행했던 창비시선의 첫 시집이었다. 그 만큼 그의 시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었고, 그의 언어는 시대를 대표하는 언어였다. 민요풍의 율격과 구수한 입담속에 담긴 소외된 이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시어를 느낄 수 있는 신경림의 문학세계를 만나본다.



① 신경림 시인은 항상 소박하고 친절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 준다. ② 충주시 목계리 남한강변에 위치한 신경림 시비. 그의 시 '목계장터'가 새겨져 있다. ③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신경림 시인이 특강을 마치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④ 창작과 비평이 펴낸 창비시선 1권으로 발간된 시집(詩集) '농무'



- ### 연재 순서
1. '님의 침묵'의 한용운
 2. 질미재 신화의 서정주
 3. '승무'의 동탁 조지훈
 4. 목가적 서정시인 신석정
 5. '낙화'의 신화 이형기
 6. '농무'의 신경림
 7. '태백산맥'의 조정래

신경림 (申庚林) 연표 (1936 -)

▲ 1936년 4월 6일 충청북도 충주 출생 ▲ 1955년 '문화예술'에 '낮달'로 등단 ▲ 1967년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1975년 첫 시집 '농무(農舞)' 발간 ▲ 1981년 한국문학창작상 ▲ 1988년 한문연구소 이사장 ▲ 1992 민중문학작가회의 회장 ▲ 1997년 제1회 만해문학상 ▲ 1998년 제6회 대산문학상 시부문 ▲ 2001년 은관문화훈장, 제2회 4·19문화상,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 2002년 제6회 만해상 ▲ 2007년 제4회 시가대상 ▲ 2009년 예술부문 호암상

대학생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친구들과 술집을 배회하며 글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낭만이 무엇이니, 문학이 무엇이니 하며 끝없이 제대로 든 작가 지망생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인은 최소한 담배 파이프 정도는 물어야 하고, 빨간 넥타이가 잘 어울리며 밥은 안 먹어도 소주는 마셔야 하는, 말 그대로 외형이나 삶 자체가 기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신경림 시인과의 만남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경림 시인 초청 특강'을 듣게 되었다. 이전부터 시인의 시를 읽어오던 터라 '신경림'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만 실물을 본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유명한 시인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나는 선풍 강의를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시인에 대한 '이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강의실 한쪽에서 조용하게 앉아 있던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골목의 선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자 또는 검게 그을린 농부의 그것과 흡사(相似)했다. 한마디로 너무나 소박하고 수수한 차림이었다. 몇 년이 흘러 내가 조교로 일할 때 시인의 특강을 손수 준비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선생님, 학교 올라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나요?"라고 여쭙자 "천천히 올라오면서 구경하니 재미있더라"고 말씀하시며 웃던 모습은 학부 시절 내가 보았던 신경림 시인의 연장선으로 기억된다.

혼란의 시대를 노래하다

신경림 시인은 1955년 '문화예술'에 '갈대', '묘비' 등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이후 고향을 오가기도 하고 공장을 전전하는 10여 년간 시를 쓰지 않다가 1965년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하며 1973년에는 첫 시집 '농무'를 발간한다. 그의 10여 년간의 행

적에 대해서 나는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시기가 공부만 하거나 글만 쓸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다는 말을 그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공백에도 불구하고 신경림 시인이 내놓은 '농무'는 '창작과 비평'에서 출간한 '창비시선'의 첫 번째 시집으로 그의 미와 가치는 여러 논자들을 통해 평가 받았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는 시집이기도 하다.

신경림 시인을 수식하거나 지칭하는 말은 유독 다양하다. 물론 한 시인과 그의 작품 세계를 몇 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들이 유통되는 것은 그 시인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지 위한 나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를 가리키는 말은 '농민' 또는 '노동자'를 포함한 '소외된 이들'을 끼안은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60·7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들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던 시기였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농무' 중)처럼 가난한 농부들이 신명나게 춤을 추며 그들의 애환을 잊으려 했고,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 두 점을 치는 소리 /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러 소리에 /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난한 사랑 노래' 중)처럼 도시의 빈민들은 주변의 소리조차 막연한 두려움으로와 닿던 시절이 1960·70년 대였다.

신경림 시인은 그들에게 오감을 열어 한국 사회의 병폐와 시대의 착란에 주목하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녹여 낸 시인의 하나로 한국시단에서 평가된다. 이런 점은 1954년에 본교 영문과에 입학하였지만 생업의 문제와 혼란했던 사회 분위기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졸업을 하지 못했던 그의 이력과는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그가 창작한 시들 중에는 특별한 사연으로 탄생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랑 노래'는 노동자로 생활하며 가난하게 살던 연인이 어느 날 조출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신경림 시인에게 축시를 부탁하자 흥쾌히 그것을 받아들였고 지은 작품으로 알고 있다. 품돈이 생기면 친구들을 불러모아 술집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피신처였던 문학을 알기 위해 시집을 통째로 외우며 흥얼거렸던 신경림 시인에게 시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 놓인 사다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여기' 신경림 시인

그러나 이런 점만으로 그를 재단하거나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여러 대표작들이 회자되며 지금까지도 신경림 시인의 위치가 유혹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집을 쏟아낸 시인에 주목하여 학계에서도 그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창작법과 미학적인 측면, 특히 민요풍의 율격과 구수한 입담에서 전해지는 신경림 고유의 정서를 중심으로 그를 조명하는 비평과 논문이 발표되는 한편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과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은 100주년을 맞아 해화문 입구에 건립된 그의 시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본교에는 만해, 조지훈, 서정주 시비 등 여러 시비들이 존재하지만, 생존 작가로서 시비가 건립된 일은 신경림 시비가 처음이다. 문학을 건설하거나 시비를 세울 때 작고(作故) 작가가 중심이 되는 풍토를 감안한다면 이런 사례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동국대학교의 문학을 조명할 때 신경림 시인은 빠질 수 없는 인물이며, 이는 한국시사에 끼친 그의 영향력과 '지금 여기'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시인으로서의 신경림을 방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신경림 시전집'이 출간되어

그의 작품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낙타'라는 시집을 발간하는 등 그는 여전히 창작에 몰두하며 이후에 출간될 그의 전집의 페이지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신경림 시인은 동시대 여타 시인들과는 달리 시론의 성격을 띤 글을 발표한 일이 드물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시인으로 남고 싶고 시인으로서의 직분에만 충실하고 싶은 그의 신념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동국대학교에 머무르는 시인

신경림 시인은 현재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직책의 특성상 학교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매 학기마다 초청특강을 개최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초청특강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 때면 언제나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해주시던 시인의 음성이 생각난다. 시를 읽는 이들이 드물어진 시대에서도 여전히 시의 역할과 책임을 믿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인. 그의 특강을 듣거나 해화문을 지날 때 '목계장터'가 새겨진 시비를 보는 것은 서술된 기호로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왜 그가 시를 쓰고 시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그의 특강에 참석하면 재학 시절 일화나 당시 학교 풍경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이런 점은 그가 시를 창작하게 된 동기와 이후에도 계속 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많은 부분 모교에서 기인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왕왕 학교에 찾아와 후배를 위해 자신의 추억과 신념에 대해 말하는, 시인으로서의 신경림과 동문으로서의 신경림 그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다.

정영호

시인 ·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위클리 동아문화

캔버스위로

흘어지는 청춘의 색깔

미술학부 2학기 과제전시회

문화관 지하 1층 동국갤러리서

"제대로 된 전시를 보고 싶는데 시간이 없다?"

여기 당신의 고민을 잠재워 줄 희소식(喜消息)이 있다. 예술대학 미술학부의 '2010학년도 2학기 과제전시회'가 문화관 지하1층 동국갤러리에서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청춘(靑春)의 붓질이 스쳐지나간 화폭엔 과연 어떤 고민들이 담겨있을까. 이번 과제전은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우고 익힌 그림을 전시하는 자리다. 그들이 그린 그림에는 자신들의 개성(個性)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서로 다른 네 개의 전공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다. 한국화전공 전시에서는 한국의 미를, 서양화전공 전시에서는 현대미술을, 불교미술전공에서는 화려하고 정교한 조선 및 고려불화의 미를, 조소전공에서는 기발하고 독특한 각종 설치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한국화전공(완료, 지난 달 25일~29일), 서양화전공(지난 달 30일~오늘), 불교미술전공(7일~13일), 조소전공(14일~18일)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서양화 전공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오늘까지 전시되는 서양화 전공 학생들의 과제전시회에는 1학년부터 3학년들의 작품으로 총 6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를 둘러보던 신단비(문예창작1)양은 "학내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있어서 좋다"며 "같은 또래의 전시만큼 더욱 공감 가는 부분도 많다"고 관람 소감을 말했다. 또한 'nude'라는 작품으로 전시회에 참여한 나예림(서양화1)양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다음 학기 때는 더욱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다"며 전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한편 내일(7일)부터는 불교미술전공 학생들의 전시회가 진행된다.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윤지수(불교미술2)양은 "한 학기동안 노력한 결과가 전시돼 기쁘다"며 "학생들이 과제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얀 캔버스 위에 선연히 찍힌 청춘의 흔적들을 보라.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당신의 젊음은 어디서, 어떤 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



▲ '혹시라도 그대라면 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노슬기(서양화2) ▲ '갈수있을까' 김지수 (서양화 2)

제 17대 총장 후보자 프로필 및 경영 계획서 - 김무봉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후보

지원 순서는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순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지원서

공모직위명	동국대학교 총장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글] 김 무 봉 [한자] 金武峰 [영문] Kim Mu-Bong	550411-	
연 락 처	연 락 처		
	[차택전화]		
	[휴 대 폰]		
	[직장전화]		
	[전자우편]		
[주 소]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 재 지 학 위
1971. 3. ~ 1974. 1.	중앙고등학교	서울	서울 문학사
1974. 3. ~ 1982. 2.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서울 문학사
1984. 3. ~ 1988. 2.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국어학	서울 문학석사
1991. 3. ~ 1996. 2.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	국어학	서울 문학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中世國語의 先語末語尾 '-ㅅ-'에 대한 研究		
경 력 사 항			
근 무 처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동국대학교	교수	교육/연구	1996.3. ~ 현재
동국대학교	교무처장	학사행정업무	2003.3.~2005.1. 임기만료
대교협 전형심의위원회	위원장	대입전형심의	2004.3.~2005.1. 임기만료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회장	학회업무총괄	2007.9.~2009.8. 임기만료
대교협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정책심의	2010.9. ~ 현재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원회의업무총괄	2010.9. ~ 현재

□ 관련분야 논문발표 업적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육조법도단정연해 연구	2006. 08.	불교학연구회
	훈민정음 원본의 출판 문화계적 가치 연구	2006. 09.	한국사상문화
	불정심다라니경연해 연구	2008. 12.	한국사상문화

※ 주요업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세부 사항은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별지)에 작성
토록 함.

□ 포상 실적, 사회 기여 업적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및 학부모 연구위원
서울장학재단 대학원분야 심사위원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대학적십자 지도교수회 부회장

□ 국가(기업)발전 기여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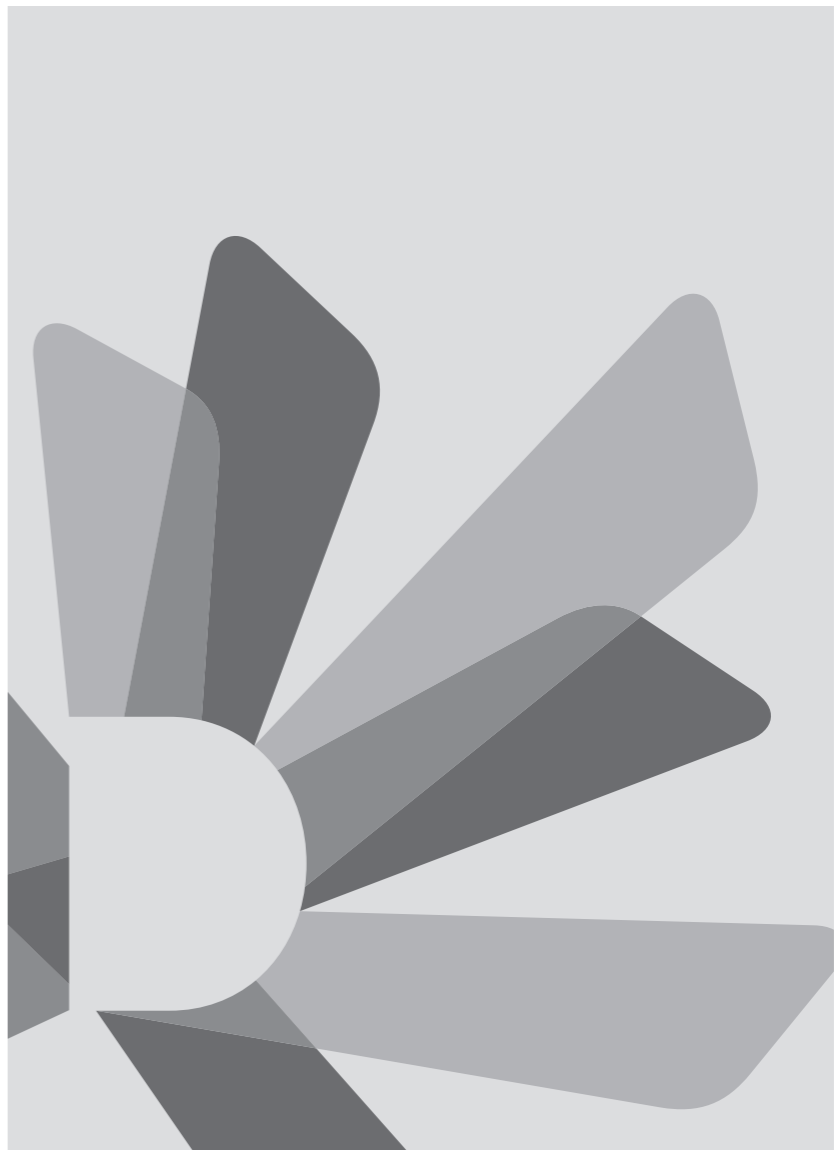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 심의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사정관계도 국고지원 선정 심사위원장 및 평가단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사정관계도 정책자문위원 및 위원장

□ 국제적 활동 사항

동국대학교 참사람보사단 몽골현지 봉사단장
동국대학교 북미주 문화체험단장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 원 자 : 김 무 봉 김석병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2010. 11. 25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 계획

국어국문학과 김무봉

교육 연구 사회진출 행정/인사 재정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 계획

총론

한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 대학으로

스승과 화합에 기반을 둔 통섭의 리더십으로 교육과 연구에 지향하는 대학 본연의 모습을 찾겠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요한 발전 목표로 삼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 대학으로라는 비전 아래 단기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 여건에 부합하고 미래를 건전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연구 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신임학 지원자 감소와 고교 이수분야 학생 증감의 추이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을 예측한 기획으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취업에 대비한 적극적 지원과 학교의 대외적 위상 상승 노력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무건전성과 발전기금의 기금원 확보 등 재정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고, 기업체 등 외부 및 학내 제 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조직 운영의 합리성 및 합목적성을 구현하고, 전문성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일곱째, 진정성과 열정으로 학교 운영에 내실을 다져서 인문-사회 분야 3대 명문대학 및 종합 10대 우수대학으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리더십을 버리는 구성원 모두의 여망을 깊이 새기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정열,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이 계획이 동국 변화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반드시 개척했던 바를 이뤘 나겠습니다.

동국 비전 체계도

비전: 한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 대학으로

목표: 창의적 지성인 육성, 목표제시형 전문인 육성, 역동적 지원시스템 구축

전략: 교육 환경의 최적화, 순수-응용 학문 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현장지향형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과제: 1. 교육 구조 개선, 2. 특화 학문 분야 선정 및 지원, 3. 국제학부 운영, 4. 학사운영 지원, 5. 교수(교수) 지원, 6. 국제화 교육 강화, 7. 인사제도 개선, 8. 교육 환경 개선, 1. 우수인력 확보, 2. 연구원(소) 활성화, 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4. 연구 전담 부서 신설, 5.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비, 1. 특화교육센터 운영, 2. 국가고시 지원센터 설립(한시안 확대 개편), 3. 외부 교육 및 연구 기회 확대, 4. 학생경력 개발 시스템 구축, 1. 행정조직 조정, 2. 인사 및 평가 시스템 개선, 1. 재무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2. 재교육기관 강화, 3. 노령 인구조치, 4. 전체 예산의 15~20% 외부유지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 계획

교육

교육: 교육 환경의 최적화

01 교육 구조 개선

목적: 전공 내 세부 학문분야에 대한 통합적 인력과 통섭력을 키워주기 위해 융합 영역 및 계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내용: - 학과별 교과과정 개편: 기초교육(필수) - 기초교육(선택) - 전공기초 - 전공 심화 - (선택)으로 구조화
- 대학내 연계교육: ①대학 공명기초교육 개설(2차학과 과목 일부 전공과목으로 인정) ②산학협동 교육과목 개설
-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구체적인 목표(End-in-view)에 따라 직업별로 필요한 교과과정 개발
- 교양분야 특강의 다양화 및 상시적 개설로 전공 이외의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획득 기회 확대

기대효과: 전문지식 취득은 물론, 문제 해결력 및 실무지식 교육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이론과 현장 적용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02 특화 학문 분야 선정 및 지원

목적: 대학 발전의 동력인 학문분야별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로 통합-육성하기 위함

내용: - 학문 분야별로 중장기 통합-발전 방안을 공모하여 심사 후 선정하고 선정된 통합 학문분야에는 인사, 행정, 재정을 우선 지원하며, Top down 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병행
- 학문 분야별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추진하며,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으로 구조조정 효과

기대효과: 학문분야별 구성원에게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 부여

03 국제학부 운영

목적: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적응 지원과 체계적인 학사관리로 학력신장을 돕고,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

내용: - 학교 소속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단국대학교 유망한 편제인 국제학부내 소속시키고, 국제학부에서 학사업무 총괄
- 일정한 수확 연한을 채운 후, 학업이수 능력에 따라 전공 선택 여부 결정

기대효과: 외국인 재학생에 대한 학사관리를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학업 이수를 유도함

04 핵심인재 지원

목적: 우수 인력 확보 및 재학생 역량 업그레이드

내용: - 멘토링 및 튜터링제 운영
- 연구 기회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 국내 각종 공모 참여 적극 지원
- 해외석학 집중강좌 개설

기대효과: (우수)신입생-최적의 교육시스템-우수한 성과-핵심인재 배출-명문대학-우수신입생 유자의 선순환 구조 확립

05 교수(교수) 지원 체계 확립

목적: 교육역량 교수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의 체계화 및 학사 중심의 새로운 교수법 개발

내용: - 동일 교과과목의 경우 교과내용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 교안 및 교육자료 개발 지원
- 산학연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대효과: 교과내용 표준화 및 강의 매뉴얼 제작으로 교육 효과를 증진하고 학사 중심의 교육 실현

06 국제화 교육 강화

목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외국 국적 학생 유치 확대

내용: - 교원학생 프로그램 및 학업교류 강화, 해외 공모에 지원 확대
- 해외 주요 대학(대학원 포함)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복수 학위취득 추진
- 우리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 및 해외 수요가 있는 학문 분야 국외 진출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및 국제적 위상 강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 경쟁력과 수요가 있는 학문 분야를 통하여 세계로 진출하게 하여 세계 명문대학 진입을 위한 토대 구축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 계획

연구

07 인사제도 개선

목적: 우수 학생 유치 및 학교 위상 강화

내용: - 우리 대학의 학문 구조 및 학문 분야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형유형 개발
- 지원 학생들의 감소와 이수 단위별 학생수 증감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여 유연성 있는 전형 기획

기대효과: 전형의 전문화로 발전 가능성이 큰 우수 학생의 유치 및 입시의 자율성 확대

08 교육 환경 개선

목적: 학생들이 오며 마를러 있고 싶은 교육 공간으로 환경 전환

내용: - 강의실 및 실험실 등의 각종 기자재와 장비의 개선
- 독서실 등 자율 공간의 확대와 편의시설의 최적화 지원으로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 연장

기대효과: 학습력의 양적 확대와 수업의 내실화 기대, 인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연구: 순수-응용 학문 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01 우수인력 확보

목적: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 능력 향상, 지식 파워 형성 등으로 우수 인재 양성

내용: - 지향한 국내외 학자 및 산업현장의 고급인력을 교수로 초빙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
- 국내외 우수 소장 연구자의 전입 연구료 초빙

기대효과: 탁월한 업적의 전입과 및 연구 인력의 확보로 고충격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체계 확립에 기여

02 연구원(소) 활성화 및 국제화

목적: 연구원(소)을 우리 대학 연구 역량 강화의 중심 공간으로 삼아 연구, 개발, 특허 등의 산출로 정립

내용: - 국내 우수 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 해외 우수연구자와 공동연구 추진 및 해외 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첨단 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

기대효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우수 연구인, 개발, 특허로 인한 학교 위상의 제고

0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목적: 산학연 협동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수주 확대 및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 육성

내용: - 산학연 공동연구, 학교 설립기업 설립 운영 확대
- 산업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실무, 또는 현장 전문가의 전담적 교류 초청

기대효과: - 정확한 역할요인이 요구되는 산학연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실무 능력을 겸비한 구체적 목표제시형 인재 양성
- 견고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산업체에는 원활한 인력공급, 학생에게는 희망 직종과 입업체 취업 지원

04 연구 전담 부서 신설

목적: 산학협력단은 응용/실용학문 분야 지원 중심이어서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비 연구와 개발을 분리해서 지원하고자 함

내용: - 연구 지원 및 관리, 개발 지원의 활성화
- 산학협력단 부속 조직의 이력기까지 제도에 의해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기대효과: 순수학문 분야의 연구 능력 강화 및 개발지원의 활성화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 계획

사회진출 & 행정/인사

05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비

목적: 교육 및 연구의 기초자원인 소프트웨어를 구비함으로써 연구 능력의 향상을 기대

내용: 분야별, 전공별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연구에 활용하도록 지원

기대효과: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

사회진출: 현장지향형 인프라 구축

01 특화교육센터 운영

목적: 재학생의 경력 개발, 졸업생의 신기술 재교육 및 국제인증의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 분야별 자격 취득을 위한 기구 설립 및 운영

기대효과: - 국제인증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공학습 효과 제고, 재학생 역량 업그레이드
- 졸업생에 대한 신기술 분야 재교육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 증대

02 국가고시 지원센터 설립(한시안 확대 개편)

목적: 다양한 형태의 국가고시에 대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합격인원 증대를 위한 노력

내용: 국가고시 지원센터 설립(사법/행정/외무 고시, 인문, 교사, 법리사/회계사, 공무원 시험 등)

기대효과: 학생들이 제공 동기부여와 기회를 증대 동시에 합격자 증대로 학교 위상 강화

03 외부 교육 및 연구 기회 확대

목적: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 교육-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역량 강화

내용: 학생경력개발부 내 외부 교육-연구 지원센터 설립

기대효과: 재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증대

04 학생경력 개발 시스템 구축

목적: 각 분야별 전문인력 및 우리대학 출신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 기회 확대

내용: - 직업별 모교출신 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화 / 분야별, 기업별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화
- 산학연 연동망제도 실시

기대효과: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률 향상

행정/인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운영

01 행정조직 조정

목적: 효율적인 행정능력 강화 및 행정 속도 증진

내용: - 중핵 업무 조정 및 필요부서 개설
- 일반대학원 행정실 / 국제학부 설치
- 자문기구(중단, 법인, 총론, 산업체) 및 구성원 전체 협의기구 설치(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

기대효과: 대학의 종합 근거리 교육-연구능력 및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강화하고 수직-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 계획

재정

02 인사 및 평가 시스템 개선

목적: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 행정 능력의 역동성 및 전문성 강화

내용: - 교수업적 평가제도 개선
- 직원 인사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기술 확보로 능동적, 전문적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재정: 재무건전성 확보

01 재무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

목적: -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 연간 서울캠퍼스의 연간 규모는 1,700억 원 정도인바, 자원 배분의 적절성 및 우선 투자 계획의 수립
- 재정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발전 기금 및 기금원의 확대

내용: - 재정 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전내용 및 사업규모 조정, 재정건전성 확보
- 발전 기금 확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수립
-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한 기획조정부(예산 등 담당) 설치 검토

기대효과: 각종 사업의 속도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발전기금의 기금원 확보의 다변화와 기금의 세분화, 기여자 및 액수의 증대 달성

02 재교육기관 활성화

목적: 잠재된 인적, 행정적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의 증대

내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변화
- 유리한 지리적 환경과 교육 역량을 활용하여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특수대학원, 사학교육원, 어학원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이연도 확대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환

기대효과: 우리 대학의 역량 집중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정착

03 노령 인구조치 프로그램 운영

목적: 우리 대학의 우수인 인력을 활용한 수익 증대와 전지구적 관시안 노령 인구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 수행
- 불교 문화재, 동물복지, 양-한방 의료지원센터, 사회봉사단, 인문학, 예술 분야 등의 인프라 활용
- 사할 문화재단 등 중산과 통합 운영 시스템 아용으로 효율성 극대화

내용: -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서울의 중심에 있는 학교의 환경, 시설 및 불교문화재, 부속병원, 실험실 등 각종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 부설 교육기관 확대

기대효과: - 사회 기여와 수익 창출 확대
- 유관 학문 분야와 연계 운영으로 학제간 연구 증대의 효과

04 전체 예산의 15~20% 외부유지

목적: 수익증대 및 중점 사업의 활성화 지원

내용: - 현재 서울 캠퍼스 일년 예산의 20% 정도인 350억원을 순수 발전기금으로 유치, 4년간 1,400억 조성
- 장학기금 유치 등과 같은 항목별 세부화로 목적별 지원 확대, 소액 기부 확산과 장기기금납부의 활성화
- 기금원이 되는 중단 및 사할, 기업체, 20만 명, 학부모, 기타 독자기금을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달금 증대

기대효과: - 기금원의 지원 확대와 지속성 유지
- 항목별 세부화로 사용 범위 명시를 통한 신뢰 구축과 기금원의 전가 마련

지면 순서는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순입니다.

제 17대 총장 후보자 프로필 및 경영 계획서 - 김희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지원서

공모직위명	동국대학교 총장			
성명	인적사항			
	[한글] 김희옥 [한자] 金熙玉	주민등록번호	480817 -	
	[영문] Kim Hee - Ok			
연락처	연락처			
	[자택전화]			
	[휴대폰]			
	[직장전화]			
[E-MAIL]				
[주소]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진공	소재지	학위
1965. 3 ~ 1968. 2	경북고등학교		대구시	
1968. 3 ~ 1972. 2	동국대학교	법학과	서울시	법학사
1972. 3 ~ 1976. 8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화과	서울시	문학석사
1974. 3 ~ 1976. 8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서울시	법학석사
1977. 3 ~ 1984. 8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서울시	법학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인신의 자유와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사사유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1976. 5	
부산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8. 9 ~ 1983. 8	
법무연수원	교수		1989. 9 ~ 1990. 8	
사법연수원	교수		1985. 7 ~ 1997. 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지청장		1998. 8 ~ 1999.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2001. 7 ~ 2002. 1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검사장)		2002. 2 ~ 2002. 10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2002. 11 ~ 2003. 3	
대전지법검찰청	검사장		2003. 3 ~ 2004. 7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4. 8 ~ 2005. 3	
서울동부지법검찰청	검사장		2005. 4 ~ 2005. 8	
법무부	차관 (제47대)		2005. 9 ~ 2006. 8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06. 9 ~ 현재	위임

□ 관련분야 논문발표 업적

구분	제목	계제년월	계제기관
논문	죽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993.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검사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1997. 11	법과 인간의 존엄
	1990년대 형사증거법에 관한 주요 판례 및 동향	2001. 6	형사판례연구 9호
	총 177건의 논문/저서 : 세부목록 첨부자료 참조		

※ 주요업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세부 사항은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별지)에 작성토록 함.

□ 포상 실적, 사회 기여 업적

1. 국회의장 표창 (1985년, 입법업무 유공)
2. 홍조근정훈장 (2000년, 공적수행 유공)
3. 자랑스런 동국인상 (2007년, 동국대 기여)

□ 국가(기업)발전 기여 업적


34년 동안 각 국가기관에서 검사, 입법심의관, 교수, 부원장, 검사장, 차관, 헌법재판관 등으로 봉직하면서, 국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조 교육 등에 있어서 탁월한 실적 기여

□ 국제적 활동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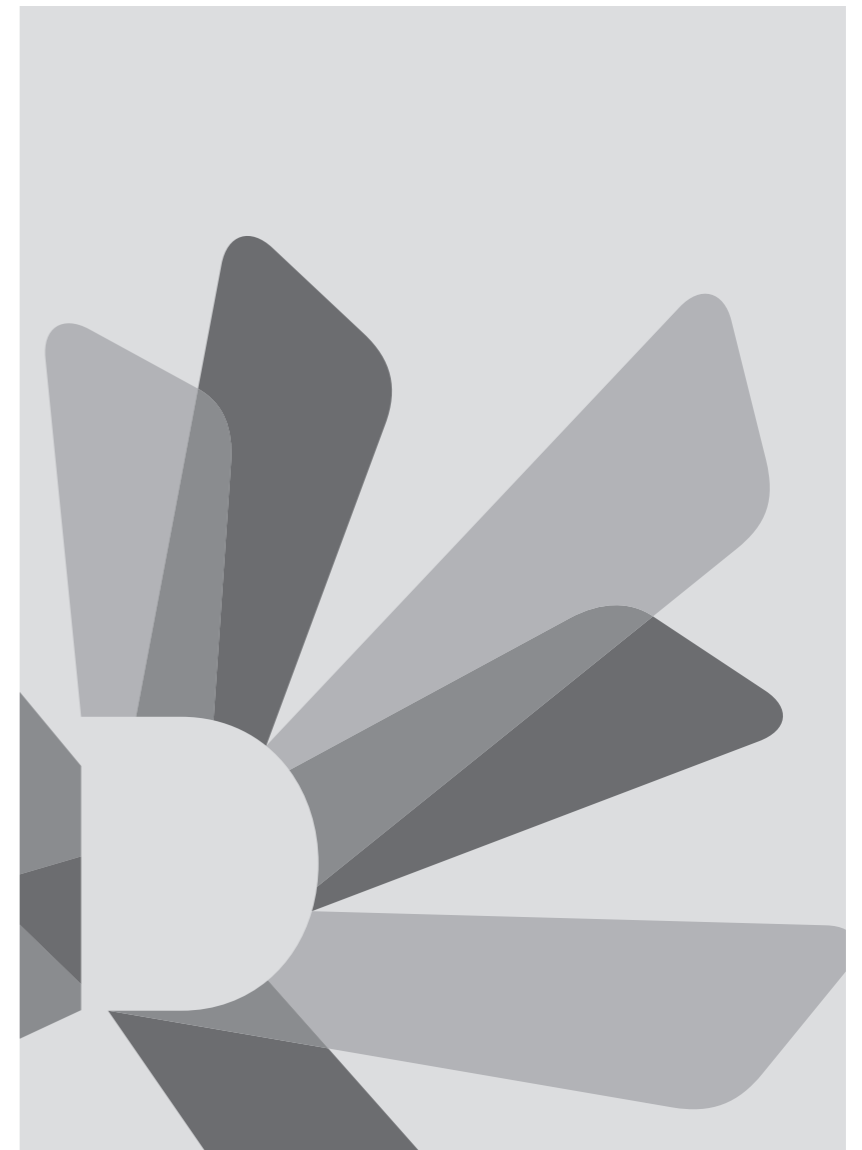
1. 2005. 11. ASEN+3 장관급 회의 참석 (국제무역법률 통제 주도)
2. 2009. 3. 이집트 헌법재판회의 참석 (국제인권 관행 실현 기여)
3. 2010. 8. 카자흐스탄 헌법재판회의 참석 (한국 헌법재판 소개 및 자원에 관한 회의)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원자: 김희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2010. 11. 25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김희옥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김희옥

저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부원장, 검사장, 법무부차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이어진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40여년 전 모교 동국대학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격과 학문을 연마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늘 깊은 예경과 관심으로 경청했던 모교 소식과 각계각층으로부터 접했던 여론 그리고 저의 생각들을 고민하고 정리하며 이제 저는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모교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I. 대학에 대한 기본 인식

□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은 불교정신에 있습니다.

인간 정체성의 혼란, 자연환경의 파괴, 윤리규범의 위기, 공동체 정신의 붕괴 등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현대문명의 본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인류의 보물입니다. 이제 동국대학교의 불교학은 그 학문적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여 대학을 넘어 사회 및 세계인류에 그 지혜와 지비정신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국대학교는 인류 보편의 위기와 해결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세계의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사회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은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사회 및 국가발전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대학의 세계 경쟁력 순위, 선진대학과 비교되는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은 우리 대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공시와 대학평가의 발달, 과열되는 대학 간 경쟁,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구조조정세와 가시화 등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변화해야 합니다. 세계의 선진대학 인재들보다 더욱 폭넓은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그를 대학보다 더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학문구조와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개선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의 규범을 세우고 그것이 대학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 소통 활성화 및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동국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은 국내 유수의 대학들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수한 자원을 대학발전의 큰 방향으로 결집시키지 못한다면 대학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저는 주요 현안에 있어 대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계화 하였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은 물론 교외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사회의 큰 흐름과 요구를 대학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사안의 실제적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 수요에 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체계 구축

대학의 첫 번째 사명은 사회가 필요로 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최근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든든한 기초지식과 창의성에 기반한 폭넓은 융합교육 및 기초-응용학문간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학문구조 및 교육방법 또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불교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건학이념에 근간한 동국대학교만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학문분야의 바탕이 되는 기초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해야 합니다.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능력 있는 교수를 충원하는 등 교양교육의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선진국들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미 융합과 신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미래의 융합분야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래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기존 학문분야에서도 사회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내외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방법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재다능하고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토론식 강의, 프로젝트 수업, IT 활용 교육, 현장전문가의 강의참여, 인턴십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 연구 성과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대학의 가치와 위상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 즉 연구 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수준의 대학들은 양적으로 풍부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또한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의 대학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국대학교의 연구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외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수 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내외 우수 교수를 적극 초빙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부족함이 없는지, 지원은 적절하지 등을 살펴 체계적인 연구진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연구 성과를 높여려면 대학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우수 대학원생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원생의 연구진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최선의 연구기재제 도입과 연구 공간 리모델링 및 확충을 통해 연구 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가의 공용연구기재제 도입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공계열의 전용 연구 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 최첨단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대학캠퍼스는 교수, 학생, 직원,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 연구, 문화, 정보의 교류 및 사고와 사색의 장으로서, 물리적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캠퍼스, IT기술과 접목한 첨단 캠퍼스,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린 캠퍼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캠퍼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캠퍼스 공간 확장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신공학관 및 기숙사 그리고 지하주차장 신축사업과 운동장 및 수영장 매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시스템대학 이전과 신축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 교육 및 연구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노후 건물에 대한 단계별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남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남산과 남산공원을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일산캠퍼스는 동국대학교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융합분야 바이오과학, 약학, 의학, 한의학은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의 첨단과학 분야를 결집시키고 지역은 물론 국가와 아시아 차원의 관련 연구와 교육 및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일산캠퍼스 건설에 매진하여 동국대학교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국대학교는 대학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대학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등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으며,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104년의 역사와 전통,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과 2천만 불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20만 동문, 우수한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교수, 직원, 학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과 역량을 대학발전의 데어로 결집시킨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성취의 도정에 30여년에 걸친 공직경험과 모교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열망과 확고한 신념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II. 대학 경영의 원칙과 방향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모교 동국대학교를 이끌어갈 경영의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자율과 책임'의 대학 경영 실현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의 행사 즉, 자율과 자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선진대학은 단위기관의 철저한 자율권 권한과 그에 따른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해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율은 엄격한 책임과 경영을 전제로 합니다. 자율이 주어진 만큼 스스로의 결과와 행위에 대한 공개와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사 및 예산 등의 집행에 있어 자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을 단과대학 중심의 단위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이양하여, 학장과 학과장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공개와 평가는 더욱 체계화하고, 평가요소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자율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완수한 단위기관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해당기관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서울캠퍼스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주캠퍼스 및 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완수한 단위기관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해당기관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안정적 재원 확보

지금의 대학 발전은 사회 발전과 비례하여 높은 질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대학은 관련 발전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경쟁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산캠퍼스 건설, 낙후된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 첨단 기자재 도입, 우수 교수의 충원 등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부금 모금에 집중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둘러싼 광범위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실효성 있는 다양한 모금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불교계 지도자와 2천만 불자,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20만 동문 등을 결집시켜 대학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기부금 모금을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사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수익성 기본자산에 대한 평가와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유류 부동산을 활용한 재원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 등 불교계의 전통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외부 지원금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핵심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 확보과정에서 저의 공직생활을 통해 형성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III. 소통, 화합, 상생 그리고 동국 발전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 속에는 대학의 발전방향과 세계 속의 인류 동국인으로 가는 목표와 방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의 내부 구성원과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각 주체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상생의 마음으로, 교수, 학생, 직원 및 종단, 계단, 동문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이해와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된다면, 우선적으로 교내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냉철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국가족 모두의 공지와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세계 속의 일류대학으로 도약할 모교 동국대학교를 위하여 제 자신의 힘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 17대 총장 후보자 프로필 및 경영 계획서 - 김보현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후보

지원 순서는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순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지원서

공모직위명	동국대학교 총장		
	인 적 사 항		
	성 명	주인등록번호	
	[한글] 김 보 현 [한자] 金 普 鉉	520410-	
	[영문] BOHYUN KIM		
연 락 처			
[자택전화]			
[휴 대 폰]			
[직장전화]			
[전자우편]			
[주 소]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1969.3~1972.2	동국고등학교		서울
1974.3~1978.2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울 학사
1978.8~1981.1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정치학 행정학(복수전공)	미국 학사
1981.6~1982.9	Syracuse University	행정학	미국 행정학 석사
1984.2~1988.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학	미국 행정학 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The Effects of Unionism and Pension Underfunding on The Compensation and Employment of Public Education Employees		
경 력 사 항			
근 무 처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피사사유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	교수 및 학생지도	1989.3~현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 장	사회과학대 운영	2003.3~2005.2 일기만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학부장	교수 및 관리	1992.1~1995.3 일기만료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임교수	학과 운영	1997.3~2003.2 2007.3~2009.2 일기만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전임대우	강의	1987.3~1988.2 기간만료
서울시립대학교	장 사	강의	1988.3~1989.2 기간만료

□ 관련분야 논문발표 업적

구분	제 목	계제년월	계제기관
논문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과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질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0.09.30	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02.25	동국대학교학연구원
	한국노인복지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9.08.25	동국대학교학연구원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8.08.25	동국대학교학연구원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 외국사례 비교연구	2007.08.25	동국대학교학연구원

□ 포상 실적, 사회 기여 업적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초구 구립 방배 노인종합 복지관 운영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운영자문위원(2005~현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자문위원(2006~2008)으로 복직발전에 기여.
- 2009년 서울시 행정시안 만족도 평가 1위를 수상한 서초구 구립 방배 노인종합 복지관으로부터 정 책자문 감사장을 수여받음
- 대한불교조계종소년연합회, 중앙신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부회장), 불교신문 논설위원 활동으로 불교발전에 기여.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용곡중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교육발전에 기여.

□ 국가(기업)발전 기여 업적


- 중앙기원(행정안전부)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평택시, 용인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구) 등의 행정활동, 지방자치, 지역경제, 재정운영 등에 대한 자문활동으로 국가행정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
- 각종 교사(행정고시, 임용고시, 외부고시, 기술고시,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로 유능한 인재의 선발에 기여함.

□ 국제적 활동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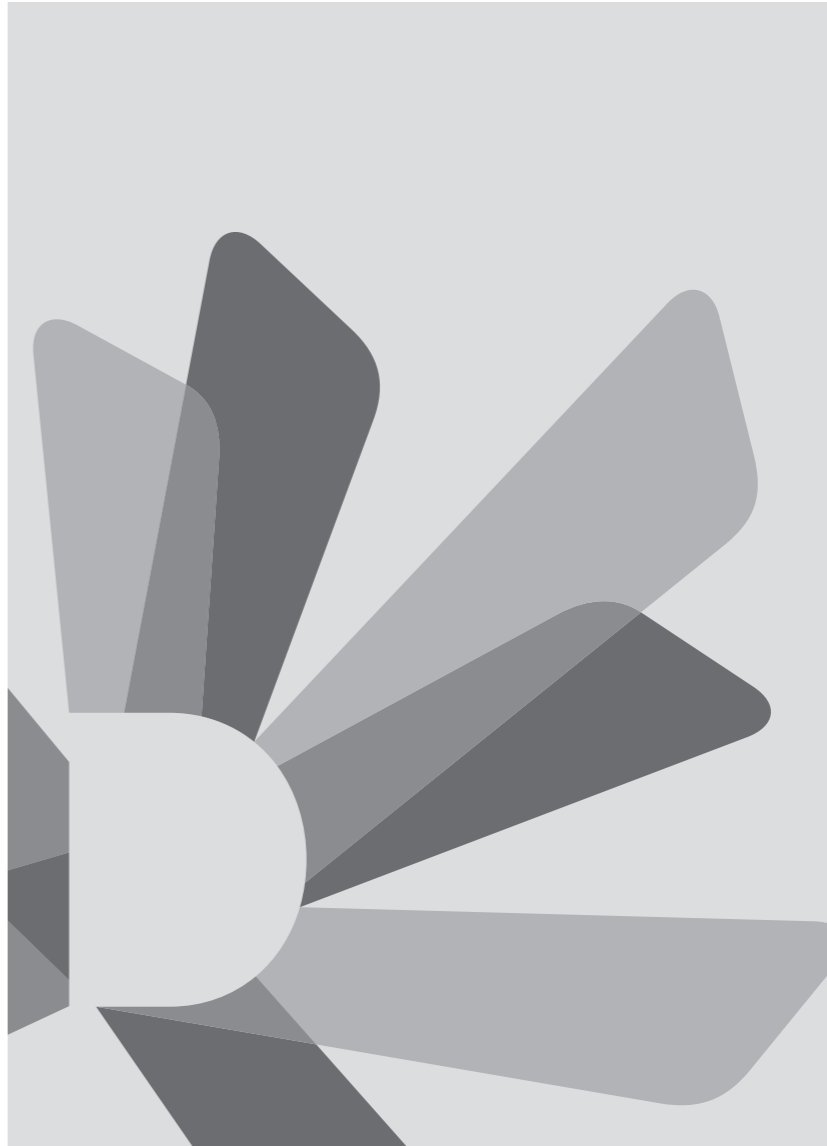
- 한일복지경영협의회의 자문위원(2005년~현재) 활동
- 대한불교조계종국제교류위원회의 활동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원자: 김 보 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김 보 현

입학대상자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1) 입학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 지역별인재대학 및 해외 명문대학과의 공동학위(dual degree) 수여를 확대하고(국내 2년과 해외 2년 교육 후 공동학위 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입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3) 입학지원 영이정의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나아가 비합리적인 영이정의를 장학금신청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 4)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ENGLISH ZONE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재학생의 생활영어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5) 미래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교사(사립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 외부고시, 언론고시, 기술고시, 회계사 등) 준비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합격인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 6) 장학제도 확충 및 장학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장학금 재원처 폐지, 내외 장학금 중복 수혜 일부 허용, 장학사제 홍보프로그램 운영).

2. 대학원: 교육의 중심을 '차세대 학자 양성'에 두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을 활성화하고 교수직원을 강화, 전문화하겠습니다.

- 1) 학부-대학원 연계수강(선 이수)을 확대하여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겠습니다.
- 2)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폭 확대하여 박사학위 중심의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3) 대학원 졸업생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4) 대학원생의 후배교육 참여기회 및 학부생 지도 그리고 대학수시입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5) 학부생지도에 위한 상담교과 신설 및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공과 학문의 특성을 무시한 학과통합 및 서열위주의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학과를 개설하며, 신설된 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착으로 Medi-Cluster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1. 학과별전원원리시스템에 의한 학과 통합과 서열위주의 학과개편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을 보호하겠습니다.
2. EU학부, 아시아지역학부를 개설하여 국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Medi-Cluster사업과 의견의 상충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및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 원활한 교육 및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하겠습니다.
2. 학부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지원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3. 연구수주 전담팀을 신설하여 외부기금을 유치하여 교수들의 연구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4. 연구부조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구비경쟁 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쟁력자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5.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학문연구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초학문 분야의 학술활동과 연구지원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경쟁과 교육경쟁 교수 선별제도를 도입하고, 연구년제를 완화 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 연구수정교수는 책임감의 시간을 조정(학기당 3시간)하여, 연구수주 및 학술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득이 해

비 전

화합(和合)과 진전(前進)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종파대학으로 지난 백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온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학교 집행부는 우리대학만의 고유한 전통과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독선적 개혁, 과도한 실적주의 그리고 연구지원이 미흡한 평가체제로 구성된 건의 갈등과 학교 운영에 대한 무관심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서 탈락되어 실추된 학교의 명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리한 투자계획으로 학교재정도 그 건전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정체성 혼란과 사기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길목에서 동국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화합과 소통 그리고 진전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協力)과 상생(相生)

미래 동국대학교의 발전의 희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 훌륭한 교수,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진 직원과 동문 그리고 재단과 종단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학교발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발전과 불교의 중흥을 위해 학교와 종단의 협력과 상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학대학의 유적신공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종파대학인 우리 대학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의 발전은 곧 불교의 발전과 포교에 직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불교종교와 학교행정을 계속 깊이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헌신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광범 봉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사명이 중심이 되는 대학

이제 겨우 40년 동안 마음에만 새겨두고 간직해왔던 동국에 대한 애정과 포부를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사명이 중심이 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하나 되는 동국, 발전과 진전이 함께하는 동국,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동국, 신뢰할 나쁜 동국, 이러한 동국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이끌어 가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출렁이 아닌 봉사와 희생의 관리자(Servant Leadership)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여주기 위주의 단기적 성과에 쫓기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후임자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 후배들이 당 신은 과연 동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는다면, '동국의 지난 백년의 역사와 단절되었던 현재를 다시 잇고 미래 동국의 백년을 열어가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멋있게 말할 수 있는 동국인이 되겠습니다.

I. 복지행정

셋째, 소통과 화합에 의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1. 총장 및 교무위원 중심의 독선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대학-교수-직원-노조-학생들의 '행정협력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구성원의 소통과 협의를 우선으로 하는 경영행정시스템을 지향하겠습니다.
 - 1)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동창회, 이공계, 신진교수 그리고 재단 및 종단 등의 의견을 학사운영에 충분히 반영하여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다.
 - 2)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와 대학운영 커드너십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 3) 불친화적 자율화도 단과대학, 대학원, 학부학과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 1) 총장직 권한을 분권화하여 부총장 중심의 신속한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부사장의 자율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2) 학사운영에 단과대학장, 대학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행정부처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3) 신입인재유치에 있어 논문우수 위주의 양적(量的)평가에 의한 교원채용을 지양하고 학과의 질적(質的) 심사권을 확대하겠습니다.

3. 단과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의 교육 특성 및 교육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통합행정지원시스템을 분리하여 각 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맞게 독립시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과인센티브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개선하겠습니다.

1. 현재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가 학문의 다양성과 직무의 특성을 간파한 과도한 (量)의 성과와 실적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 1) 성과평가제도: 교직원 사기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급을 균등 배 분하여 기본급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2) 승진제도: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정서적 불만 요인을 조사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 교직원들의 성과와 업무실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1) 직원의 근무환경을 향상시켜서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근무실적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2) 교수 임직평가에 교육-연구-임상 등 선택권을 보장하고, 질적 심사 확대 및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 목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업적우수수료에 대해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정년연장(70세) 및 임직평가제 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급여 및 복지수준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1. 교직원들의 급여수준을 우리나라 3대 사학의 위상에 걸맞게 국내 최상위 대학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1) 지난 3년 동안의 동결된 급여를 완전히 보상하고, 3대 사학에 걸맞은 급여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2)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ZBB같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연기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급여인상을 최우선순위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2. 교직원들의 존엄과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1) 비리단적인 근무환경(과도한 업무량, 유리도 포함)에 있는 사무실을 개선하겠습니다.
3. 교직원들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1) 교직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금 면제를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타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교직원들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공계, 이직전, 여학생)의 권 리와 복지를 개선하는 데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 3) 동국대 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가족과 재학생의 의료비면제 폭을 교직원 모두수준 인 50%로 대폭 확대하고, 동대병원에서의 건강진진을 격년에서 매년 수검으로 확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질 적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4) 유망시상(논문상, 낙산학사, 오대산, 장원도 경선), 복지시설(양명관 목욕탕, 한산시 갑일동), 남달(남달 담양관)을 설립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II. 선진교육

셋째, 학교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적극적인 재원확충사업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하여 학교의 재정운영에서의 등록금 의존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광의적 인재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학부: 인성교육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의적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신입생 선별제도를 다양화 하고, 우수학생의 유치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1) 인성의 조기 발굴과 효과적 육성을 위해 선학원인중재와 학원인구감소 및 우수학생 유출에 대비 영재강 화금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2) 단과대학별 예비대학(과학고, 리더십캠프, 봉사캠프, 스포츠캠프 등)의 개발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입학대상자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3) 입학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4) 지역별인재대학 및 해외 명문대학과의 공동학위(dual degree) 수여를 확대하고(국내 2년과 해외 2년 교육 후 공동학위 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입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5) 입학지원 영이정의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나아가 비합리적인 영이정의를 장학금신청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 6)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ENGLISH ZONE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재학생의 생활영어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7) 미래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교사(사립고시, 행정고시, 임용고시, 외부고시, 언론고시, 기술고시, 회계사 등) 준비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합격인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 8) 장학제도 확충 및 장학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장학금 재원처 폐지, 내외 장학금 중복 수혜 일부 허용, 장학사제 홍보프로그램 운영).

2. 대학원: 교육의 중심을 '차세대 학자 양성'에 두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을 활성화하고 교수직원을 강화, 전문화하겠습니다.

- 1) 학부-대학원 연계수강(선 이수)을 확대하여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겠습니다.
- 2) 석·박사통합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박사학위 중심의 대학원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3) 대학원 졸업생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4) 대학원생의 후배교육 참여기회 및 학부생 지도 그리고 대학수시입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5) 학부생지도에 위한 상담교과 신설 및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공과 학문의 특성을 무시한 학과통합 및 서열위주의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학과를 개설하며, 신설된 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착으로 Medi-Cluster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1. 학과별전원원리시스템에 의한 학과 통합과 서열위주의 학과개편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기초학문과 순수학문을 보호하겠습니다.
2. EU학부, 아시아지역학부를 개설하여 국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Medi-Cluster사업과 의견의 상충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및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 원활한 교육 및 실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하겠습니다.
2. 학부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지원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3. 연구수주 전담팀을 신설하여 외부기금을 유치하여 교수들의 연구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4. 연구부조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구비경쟁 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쟁력자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5.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학문연구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기초학문 분야의 학술활동과 연구지원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연구경쟁과 교육경쟁 교수 선별제도를 도입하고, 연구년제를 완화 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 연구수정교수는 책임감의 시간을 조정(학기당 3시간)하여, 연구수주 및 학술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득이 해

입시시간을 조화하는 강의시간은 상충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2. 교육수정교수는 강의만 전담(학기당 6시간)하며, 교육수주수요에 관계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그 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3. 단과대학의 자율적 운영 하에 행정 연구년제를 단계적으로 3~4년 내로 완화하고 연구년 기간 동안의 연구년임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4. 연구수정교수를 위한 연구수정기금을 학원단체후보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5. 연구수정 인명명부에 저서를 포함 시키고(외국출판 저서는 가중치가 평가), SCI, SSCI, A&HCI 게재논문은 평가가중치를 원 2.5배에서 4배로 하겠습니다.
6. 외국 학술대회와 발표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 학술대회 발표도 지원하겠습니다.
7. 전국 규모의 국제학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본교에 유치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II. 건전재정

셋째, 외부기구 유치를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연구수주사업을 전담하는 연구수주전담팀을 신설하여 외부기금을 적극 유치하고 유치기금의 25%는 학교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1) 연구수주사업팀 구성으로 국제사업 및 정부지원 사업 그리고 민간기업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대외 재정부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은 최대 100억 원으로 해당 9년간 지원되며, 지식경제부 '산업인력기술포럼사업'은 매년 1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2) 이를 위해 대학연구프로그램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대외교섭, 유치금지제, 행정지원 등)을 개발하고, 박사급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하게 하겠습니다.
2. 불교계와 종단 그리고 동국대학교 동문, 재학생, 학부모의 상생파트너십을 정례화하여 안정적인 대학발전후원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10인년 동국인발전위원회'(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를 조직하겠습니다.
 - 2) 종단차원의 발전기금 지원을 위하여 조계종총무원-한국교구본사주지회-불교신도회(중앙과 지역)-학교 법인-동국대학교 간 '동국무원 불교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불교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학교행사 참여와 자문을 강화하겠습니다.
 - 3) 불교계와의 발표와 조계종으로 한국불교경영인연합회(불교계 CEO)의 동국발전기금 모금을 확대하겠습니다.
 - 4) 총장직속의 기부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부자는 물론 경제적 기부자의 발표를 위한 DVDS를 구축하고 권리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학생유치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을 강화하겠습니다.

1. 해외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유치 강화로 동국대학교의 세계화와 재원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1) 외국인 학생유치 전담부처를 확대 개편, 전문 인력 보강, 예산 증액 등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로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의 외국인학생을 유치하겠습니다.
 - 2) 외국인 학생의 강의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정의 국내 한국어교육을 이수도록 하겠습니다.
2. 특수대학원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대학원생을 유치하겠습니다.
 - 1) 특수대학원의 최고위과정 원형유지 증대를 통한 재원확보를 장려하며 운용의 자율권 부여하겠습니다.
 - 2) 독립체제와 원형유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통해 특수대학원의 재정수익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3. 사회적 수요가 높은 사회복지대학원을 신설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불교의 지방정신과 동국대의 사회복지 지원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 일산캠퍼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수요와 인근지역에 대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원, 사회교육원, 특수대학원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5. 국내에 사생활이 자유(비전원 생활숙박시설연구소 활용)를 신설하여 사생활이 자유로이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파견을 개설, 운영하여 숙명여대의 한국숙박연구소를 능가하는 연구소 확대발전시켜 수경유지제를 확대

시기를 갖습니다.

셋째, 공격적인 수익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 총장직속의 유망부서 개발을 전담하는 실행부서를 설립하여 적극 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 대학출판사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교재 및 교수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출판사업에 따른 재정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3. '동국ECONETWORK'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생애관리부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 및 시설 그리고 소재 사들과 연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1) NETWORK : 메이스팅(경기도 용인시) - 강원도(오대산 힐링스) - 경북(청도군 운문사) - 경남(양양시 표충사) - 전남(담양군 용유사) - 전북(완주군 소양리)을 연결하는 생애관리와 템플스테이 및 궁극
4. 동국대학교와 불교의 템플이미지를 접목한 학교브랜드를 탄생하여 학교와 불교의 이미지 제고와 수익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 1) 동국대학교의 자체브랜드를 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 시 박물관(예, 김치, 쌀, 떡, 김, 고추장, 된장, 간 등)을 개발, 상품화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유망한 수익사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2) 미국인 뿐 아니라 지역 내 특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경건한 투어와 참선, 사찰음식 조리체험과 명유공양, 다도, 동국ECONETWORK 참여, 캠퍼스투어 및 남산투어)을 개발하여 동국 대학교의 홍보와 더불어 수익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3) 동국ECONETWORK와 동국대학교 자체브랜드의 홍보에 동문연대인, 불교인원을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5. 외장부 조제의 정교공학과를 자립형사업으로 전환한 후, 수익은 재단의 전입금 형태로 학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6.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동국대학교가 그린벨트와 공법면적 저촉되지 않는 범위 에서 추진 가능한 수익사업 모델 개발시행으로 장단기적인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1) 은진산(250만 평) 개발 3단계 프로그램(완경태체육학수원-수원-레크리에이션)을 최우선으로 추진 하고, 교육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재정수입에 기여하겠습니다(입학지원센터 신집성 선별기구에 환경생 태체육학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강화하여 참여를 극대화 함).
 - 2) 신집성(4만 평) 일원을 약초원과 생체재료연구소 개발하여 바이오소재대학과 약학대학 및 한의 대의 슬슬강으로 사용 할뿐만 아니라 학교본부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3) 양명관 목욕탕 지역(7만 평)을 실버종합리조트타운으로 개발하고 의과대학 및 약학대 연계하여 서비스 를 전문화하겠습니다.
 - 4) 한산시 갑일동 일원(3천 5백여 평)을 은하인 동문, 교직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을 설립하 겠습니다.
 - 5) 강원도 경선지역에 일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여기 및 휴양시설로 개발하여 이익을 증대하겠습니다.
 - 6) 전남 담양군 일원(80만 평)에 남달 및 대광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장수정역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장도로에 의한 접근성이 높음).
 - 7) 강릉시 삼산리 오대산 일대(450만 평)는 개관만교를 중심으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8) 전북 완주 소양리(112만 평) 절터 및 일대에 동국대학교 정자원 분원을 설치하여 템플스테이, 생태관광단 지를 개발하겠습니다.
 - 9) 강원도 낙산사를 증축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시설로 사용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활 용하겠습니다.
7. 학교 운영장기화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주차장, 시민의식시설, 문화체육시설, 남산경관시설 등 건립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은 주말 및 공휴일 그리고 야간에 시민 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3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부 동국영상센터를 교육종합오이스 또는 모스크텔로 신축하여 영상관련 교육기반 및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관련 오이스, 상가 등으로 개발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건축사무소의 1차 기본설계 및 경제 적 타당성 조사결과 수확물이 년 간 약 13~18% (240억 원 ~ 36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 17대 총장 후보자 프로필 및 경영 계획서 - 유덕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후보

지면 순서는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순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지원서

공모적위명	동국대학교 총장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글] 유 덕 기 [한자] 柳 德 基	470921-		
	[영문] YOO, DUCK-KI			
[자택전화] [휴 대 폰] [직장전화] [전자우편] [주 소]	연 락 처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1965~1970	순천고등전문학교	농업경제	순천	
1970~1975	동국대학교	농업경제	서울	학사
1975~1980	독일 Bonn대학교	농업경제	독일	학사
1980~1983	독일 Bonn대학원	농업경제	독일	석사
1983~1988	독일 Bonn대학원	지역경제	독일	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Die Landwirtschaftlichen Strukturwandel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in Süd-korea			
경 력 사 항				
근 무 처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독일본대 농경제연구소	연구원	연구	1984~1987	귀국
동국대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교학업무	1995~1996	-
동국대 지역발전연구소	소장	연구	1996~2005	-
동국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경영총괄	2003~2004	-
동국대 대외협력처	처장	대외협력업무	2003~2005	-
독일 카셀대	객원교수	연구	2005~2006	-

관련분야 논문발표 업적

구 분	제 목	개제년월	개제기관
논 문	별지참조		

※주요업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세부 사항은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별지)에 작성
토록 함.

포상 실적, 사회 기여 업적

별지참조

국가(기업)발전 기여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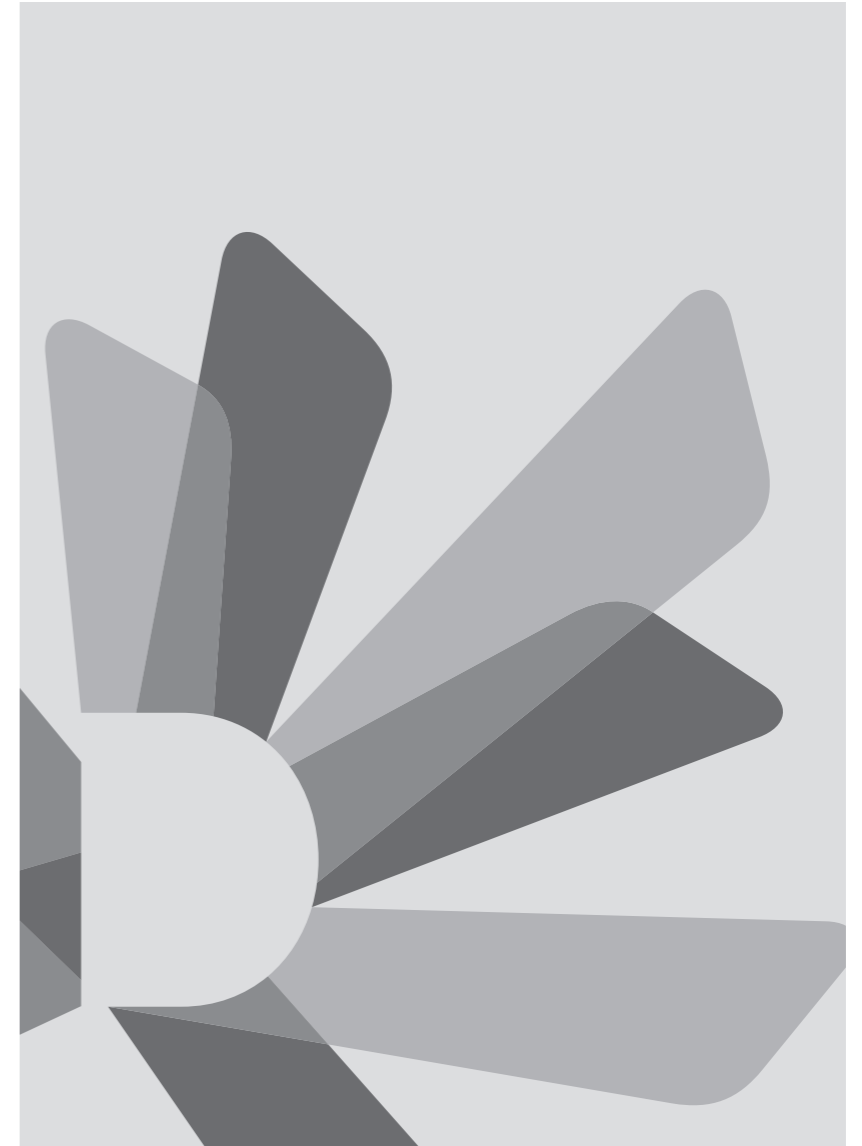
별지참조

국제적 활동 사항

별지참조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25 일
지 원 자 : 유 덕 기 (서명)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동국대학교 발전계획

2010. 11.

식품산업관리학과 유 덕 기 교수

창의적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세계화시대의 민족선도대학

제 1장 동국대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배경
제 2장 목표달성 추진전략
제 3장 부문별 발전계획
제 4장 포부 및 기본자세

제 1장 동국대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배경

1. 발전계획의 수립배경

1.1 외부환경변화

- 대학교육시장개방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 지속가능·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전개와 교육정책의 변화
- 대학간 무한경쟁에 따른 양극화심화와 서열 고착화
- 학문-학제간 융합(Convergence) 현상가속화

1.2 내부환경변화

- 100년역사에 상응한 대학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 발전전략필요
- 동국대의 글로벌화와 차별화 전략요구
- 교육수요자와 사회수요 중심의 학교운영체제로 개편필요
- 시대적 교육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구축

1.3 교육환경변화

- 자본과 아카데미즘의 결합
- 산학협력 확대와 양극화 심화
- 교수채용방식의 다변화
- 대학행정의 개방화, 전문화, 분권화와 특수분야 아웃소싱활성화

2. 현 상황 평가와 진단

- 동국대의 현재-대내외적 평가: 10위권 밖
- 동국발전관련 SWOT분석

SWOT Matr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대학의 사회명문의 전통 ◆20만 동국가족 ◆인리적 조건의 우수성 ◆양한방 약학 협력체계(의료관광) ◆학문적 특성화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구조의 취약성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 ◆종단, 재단, 대학, 동창회의 상호 협력 소극적 ◆대학구성원의 관심과 커뮤니케이션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재원확보의 한계 ◆병원경영의 불안정성 ◆수도권대학 지원규모감소 ◆경쟁대학의 투자와 구조개선 ◆교비이용 대형프로젝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내갈등 해소와 안정 ◆창의적 경영리더와 퍼워브랜트 ◆산·학·지자체의 공동협력강화 ◆대학위상 변동기와 융합확충수요 증가

제 2장 목표달성 추진전략

1. 미래의 동국

- ◆비전: 창의적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민족선도대학
- ◆발전목표: 국내 3대 명문 대학/세계 100위권 대학 도약
- ◆목표달성을 위한 5대 기본방향

1.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2. 교수연구 능력과 환경을 글로벌 기준으로 향상시킨다.
3. 지혜와 자비정신 함양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4. G3-N3특성화 선도로 대학비전과 목표를 달성한다.
5.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2. 발전전략추진체계

2.1. 전략추진체계도

◆발전전략추진체계

<전략추진체계도>

비전: 창의적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민족선도대학

발전목표: 국내 3대 명문 대학/ 세계 100위권 대학 도약

전략: 성과중립 특성화, 교육·연구 혁신의 양극화, 국제화/브랜트 브랜드 위상제고

2.2. 단계별 추진계획

◆발전전략추진체계

<단계별추진체계>

연구·교육 혁신역량제고, 3대 명문대학/ 세계 100위권 위상제고, 국제화/브랜트 도약

제3장 부문별 발전계획

1. 대학운영시스템 개선

- 대학구성원 중심의 동국발전기획단 운영(주요 정책수립)
- 세계화에 대응한 행정지원시스템과 연구네트워크 구축
- 창의적 전략실천위원회 설립(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 지역사회와 대학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연구기금조성과 근무여건개선 통한 조직만족도 제고(복지수준향상)

2. 교육·연구혁신 역량제고

- 교직원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확립(연구년/휴식년 등)
- 우수 정년교원과 직원 활용제도 도입(정년 연장 등)

5.4. 재원확보 세부방안

1) 안정적 재정확보방안

- 제로베이스 예산편성방식에 근거한 예산수립
- 전략적 우선순위에 근거한 예산확보와 집행
- 대외협력전담부서 조직 재정비와 운영역량강화
- 발전기금조성의 전략적 모델개발과 기부자관리체계화
- 안정적 수입원 발굴과 수입재원의 다양화(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2) 기금조성사업

- 공공기관 및 정부 투자 확보(개인, 종단, 대학의 사업T/F 활용)
- 동문, 기업, 불교계의 재원 발굴과 기부문화 활성화
- 학교소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 자산화 추진
- 연구기금조성 확충(국책연구 간접비 등)
- Project Financing 등 활용을 통한 공동투자 모색(농협 등)

3) 수익성사업

- 신규 재원조달을 위한 학내 아이디어 공모(인센티브 제공)
- 대학유형서비스사업(기자재/건강식자재/사무용품 등)
- 유명사찰 화장장 경영/컨설팅사업(대학소유산림 수목장과 연계)
- 농어촌 의료복지서비스와 의료관광사업(산학정 협력)
- 문화예술 기획사업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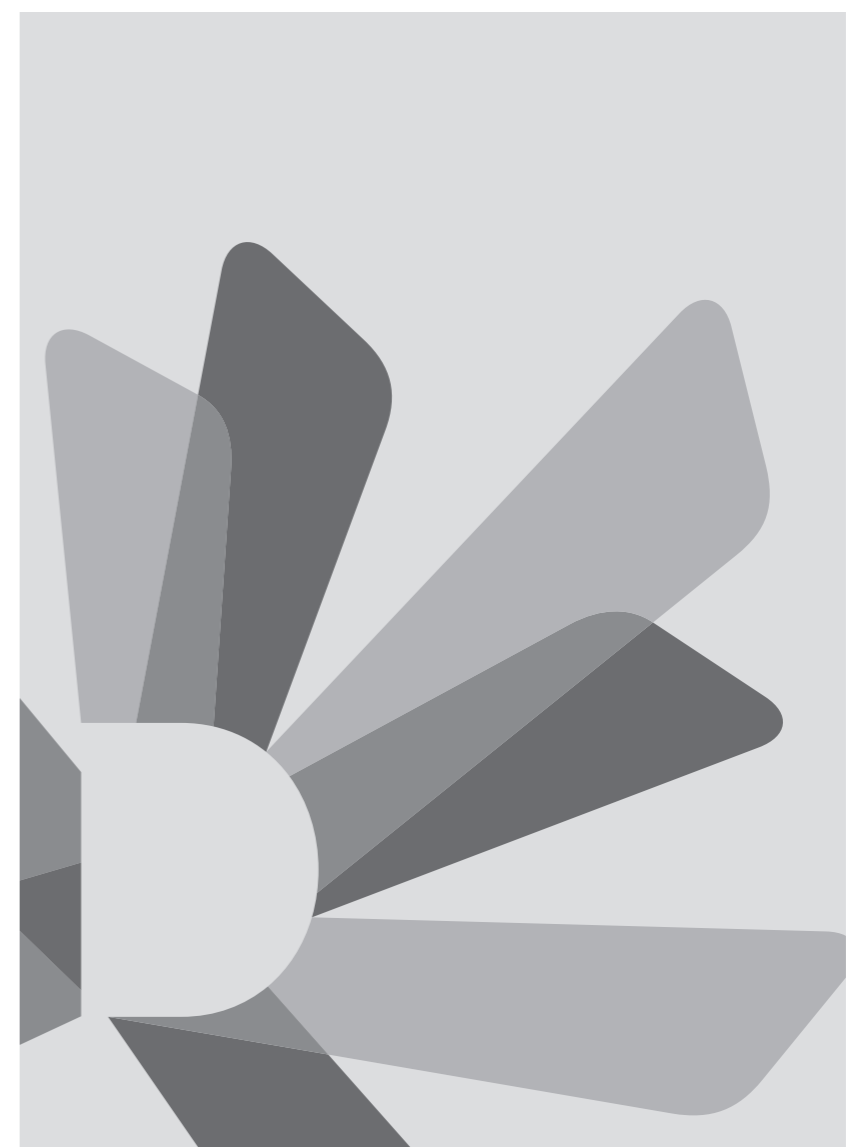
제 4장 포부 및 기본자세

1. 포 부

- 동국대학교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일기 중 백년역사에 상응한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국내외에 확립하겠습니다.
- 대학 구성원간의 화합(재단, 대학, 교직원, 학생과 동창회 및 종교계)과 내부 의사소 통에 최선을 다하여 국제적인 대학이 되도록 대학발전을 위한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의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검토 분석, 취약점을 개선하겠으며, 또한 발전기금 모금 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2. 자 세

- 불교정신에 입각한 건학이념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불자총장이 되겠습니다.
- 자율과 분권의 원칙과 봉사하는 자세로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 교직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성과를 되돌리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제 17대 총장 후보자 프로필 및 경영 계획서 - 심익섭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후보

지면 순서는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순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지원서

공모적위명	동국대학교 총장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글] 심 익 섭 [한자] 沈 翼 翊 [영문] Shim, Ik - Sup	520318-		
연 락 처	[자택전화]			
	[휴 대 폰]			
	[직장전화]			
	[전자우편]			
	[주 소]			
학 력 사 항				
기간	학교명	전공	소재지	학위
1968~1972	제주도고등학교		인천	
1972~1979	동국대학교	행정학	서울	행정학사
1979~1981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서울	행정석사
1981~1987	독일국립슈파이어행정대학원(DHV-Speyer)	행정학	독일	행정학석사 및 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동아시아의 행정문화와 비교연구 Verwaltungskultur in Ostasien			
경 력 사 항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인하대학교	조교수	행정학과 교수	1988~1990	대학이동

관련분야 논문발표 업적

구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독일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합리적 정부 간 관계 연구 (가장 최근의 등재논문 이외의 논문업적은 공간부족으로 별지의 이력서 참조)	2010.6.30	한·독사회과학논총(20-2)

※주요업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세부 사항은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별지)에 작성토록 함.

포상 실적, 사회 기여 업적

1. 자원봉사기장 수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2007)
2. 대통령표창 (2009)
3. 2010년경쟁력 인플 대상 (시사투데이/헤럴드경제, 2010.10.8)
4. VISION 2010 경영혁신 대상 (서울신문, 2010.10.29)

국가(기업)발전 기여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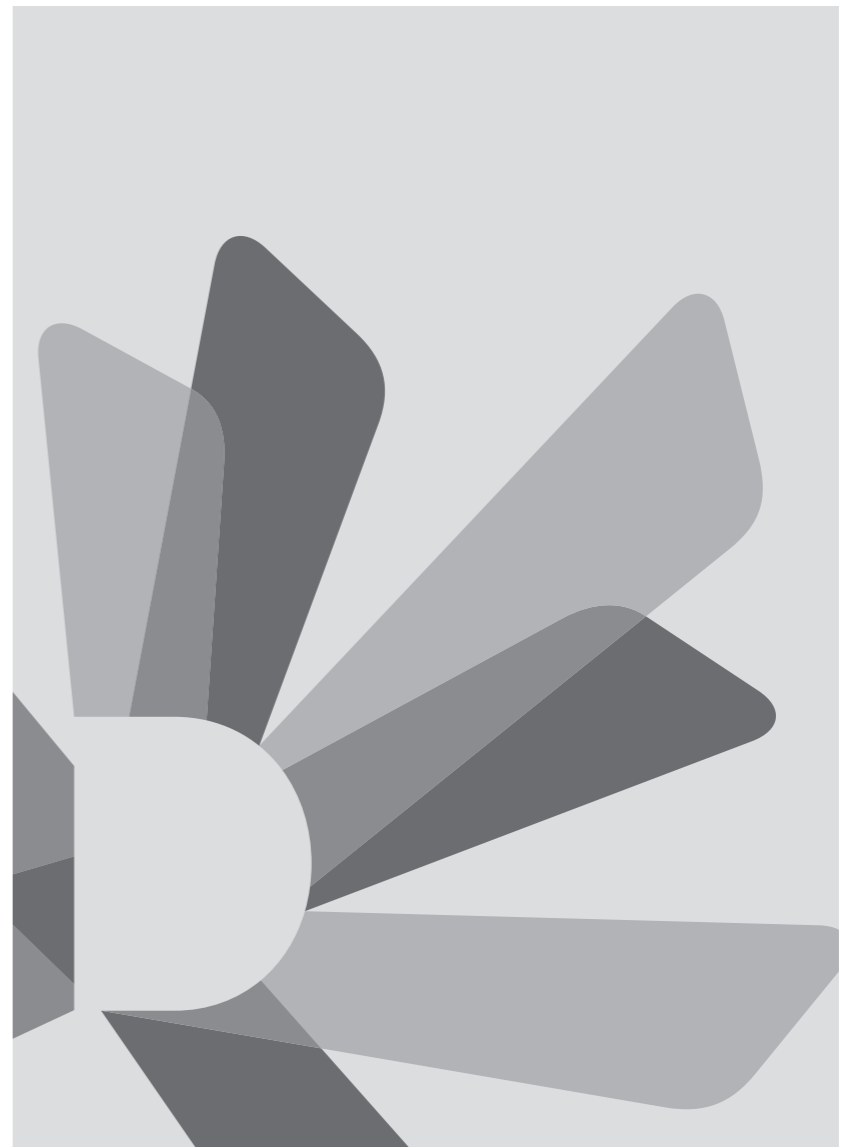
1. 대한민국국회 지방행정체계개선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재)
2. 국회 미래도시포럼 자문위원 (현재), 국회소화 녹색재단 공동대표 (현재)
3.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4.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공항공철도 경영자문위원 (현재)

국제적 활동 사항

1. 한독국가혁신연구회(KDKSV) 공동대표/한국측대표 (현재)
2. 한국독일학회 회장 (현재), 한독사회과학회 및 한국아태지역교류회 회장 (역임)
3. 독일국립슈파이어행정대학원 강의를, 독일행정경영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임)
4. UN가버넌스센터 심사위원 (현재), 국제지역봉사학회 이사 (현재)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원자: 심 익 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심 익 섭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스마트 캠퍼스, 변화하는 대학, 한국적 세계화”를 東國이 선도합니다!
건학 100년을 훌쩍 넘긴 역사적 전통 속에서 우리 동국은 교육, 연구, 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넘어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특히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정신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점은 언제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내외적 환경과 리더십 부재로 새로운 100년을 위해 거듭나야 할 동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경제성마저 흥미를 거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진정한 새로운 미래니업의 시작과 함께, 바야흐로 향후 4-5년은 우리 동국대학교 위상의 함배를 가능 할 결정적인 시기라고 감히 강조합니다!

저는 대학행정의 핵심보직(기획처장)은 물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활동(세종로로컬 운영위원장),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기여(국회자문위원), 중앙과 지방정부 등 수많은 국가기관의 정책자문(대통령자문위원),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코레일경영자문위원), 최고사계전문가들에 의한 많은 전문학회(한국독일학회)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부회장)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화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는 ‘변혁적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동국대학교를 ‘스마트 캠퍼스, 거듭나는 대학’으로 혁신시키고, 신뢰받는 강한 ‘동국중심세계화’ 전략을 성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된 총장으로서의 역할과 동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자신감으로 넘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국비전을 위한 4대 핵심(시스템혁신, 대학성과혁신, 자원관리혁신, ‘동국중심세계화’ 혁신)을 중심으로 한 ‘동국VISION2020’의 요약개서를 검토하시어 ‘준비된 총장 심익섭’에 대하여 냉철하고도 합리적으로 평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국비전2020: 도전과 대응전략

도 전

외부의 도전	내부의 도전	제3의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지식정보화, 경쟁심화 ● 자원갈조: 인력, 물적 자원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인대입, 소통 부재, 갈등 구 ● 투자중단의 재정 구조의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계단과 동국학원 간 시너지효과와 반감 ● 학제 위상과 미해결 과제 간극

대응 전략 : 혁신

시스템 혁신

- 대학패러다임의 전환: 스마트캠퍼스
- 대학행정서비스-체계적동성 극대화
- 학원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 시스템 역량 강화-시스템 다이나믹스 시스템 지속가능성

대학성과 혁신

- 교육성과, 교육품질 개혁
- 연구성과 선도대학, 학문동등성 실현
- 교육연구평가시스템 체계화 (누거버넌스 개혁)
- 전공분야 다양화, 학제간 교류 활성화

자원관리 혁신

- 체계적 자원관리, 재정건전성 확보
- 인적·물적 새로운 '자원발굴' 전략
- 대학주요자원 수입 극대화
- 대학활동의 총체적 관리역량(NFM)강화

‘동국중심세계화’ 혁신

- ‘동국중심’ 학업을 통한 ‘인바운드세계화’ → ‘동북아문화중심대학’
- 사학계의 창조적 역동성 강화
- 사회책임, 시장활동 강화와 교육혁신성
- 대학활동의 수요공급분석과 합리화

동국비전2020

■ 동국대학교의 VISION

1. 머물고 싶은 녹색의 스마트 캠퍼스 (Smart Campus)
2. 행정서비스에 입각한 대학정책책임성 (Policy Accountability)
3. ‘동국중심세계화’를 위한 체제역동성 (System Dynamics)
4. 총체적 대학역량강화 (Capability Enlargement)
5.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Network Governance)

■ 대학의 기본목표

1. 임기 중 동국대만의 고유한 대학정체성을 구축합니다.
2. 일백년 역사와 전통에 걸 맞는 대학위상이 확립됩니다.
3. 새로운 백년을 위한 스마트 캠퍼스가 만들어집니다.
4. 대학행정이 책임성과 함께 자율과 분권의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5. 교수님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6. 정책실명제로 대학정책에 대한 무한책임이 부여됩니다.
7. 어떤 급변하는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역동성을 구축합니다.
8. 구성원간 긴밀한 소통으로 상성이 통하는 신뢰의 대학으로 거듭납니다.
9. 구성원 개별 역량강화로 대학의 총체적 역량강화를 이끌어냅니다.
10. 법인·종단·동창회·대학 상호간의 미래지향적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 대학운영의 실천방향

1. 총중으로서 외부활동 특히, 대학자원개발과 학교 위상제고에 전념
2. 학내 사항은 부총장 주관 하에 각 처/실장에 전결권 대폭 이양
3. 각종 위원회에 평균수 참여확대로 교민 및 대학운영 의사결정 권한부여
4. 국가정책 및 정부와 동국대 간의 긴밀한 전략적 공조체계 수립
5.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하의상대의 민주적 정책메커니즘 구축
6. '동국-한국-동아시아'를 연계한 '동국중심세계화' 실현
7. 대학보건의 봉사개념 도입과 '자율보직제' 시행
8.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과 학과가 도약하는 계기 부여
9. 재단, 총동창회 및 종단 등 대학연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
10. 국가사회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실천

혁신적인 세부실천계획

■ 시스템 혁신

- ☞ 대학패러다임(University Paradigm)의 전환!
- ☞ 선연적 지식으로부터 21세기 '절저적 지식'의 정립!
- 1) 스마트캠퍼스: 새로운 대학패러다임의 구축
 - 캠퍼스 디지털화로 스마트캠퍼스의 실질적 모델 구현
 -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캠퍼스 구축
 - 각종공무원부터 한옥마을에 이르는 지역사회 전파형 그린캠퍼스
- 2) 전략적 대학경영체제의 확립
 - 대학시스템의 상호보완과 총체적 역량강화
 - 대학운영 시스템의 체계적동성과 상시개혁체계 확립
 - 대학시스템 상 성과창출형 대학경영체계 정립
- 3) 합리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 대학 계 단위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체계화
 - 신뢰행정과 청렴행정으로 세계의 대학규모의 정립
 - 민주적·합리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현실화
- 4) 적극적인 학교홍보와 이미지 개선으로 '동국패러다임' 안착
 - 새로운 '동국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대학이미지 전환
 - 적극적인 대학PR 시스템 구축
 - '한국불교-아시아문화중심-글로벌동국'의 연계시스템 구축

■ 대학성과 혁신

- ☞ 교육과 연구특성화를 통한 '동국중심세계화' 전략!
- ☞ '교육→학습→사고→창조'를 넘어 '혁신(Innovation)'의 세계로!
- 1) 혁신적 지식인의 양성
 - 철저한 인성교육으로 '동국인' 만의 사회형 인간 개발
 - '동국형 인재' 양성을 위한 'Top Class' 리더십 프로그램 마련
 - 장기적인 생애주기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2) 연구성과 선도대학
 - '동국중심세계화'를 위한 연구특성화 전략
 - 학문적 융합, '글로벌바사프로젝트' 등 정부정책과의 조화 발전
 - 양적 연구로부터 '절저 연구'로의 전환 (대학간연대 선도)
- 3) 교육연구평가시스템 체계화
 - New Governance에 입각한 통합적 대학역량평정체계
 - 교수연구, 교육과정, 평판도, 국제화 등 일반지표의 상시화
 - 교육연구성과에 따른 철저한 인센티브시스템 정립
- 4) 맞춤형 교육, 자율형 연구
 - 대학, 학과와 기업 간의 맞춤 인재양성 연계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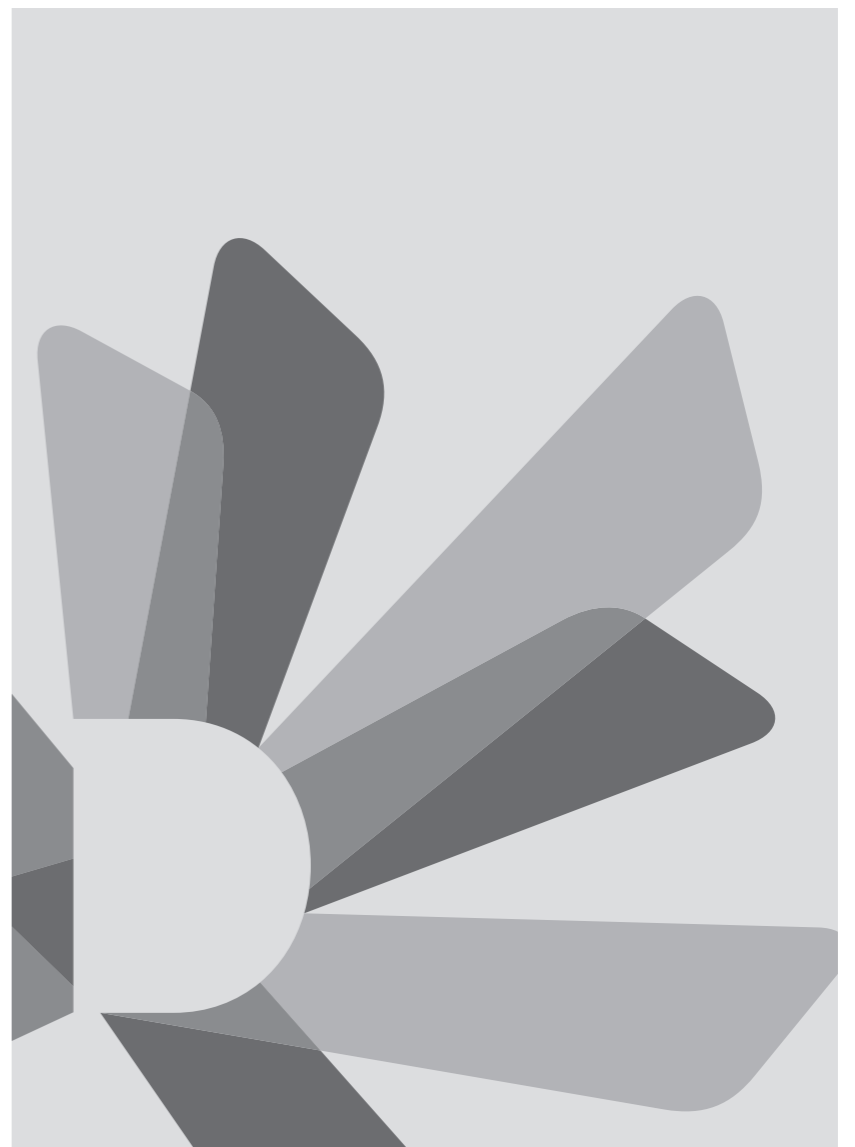
- 자율형 교육·연구 강화로 교수와 학생이 꿈을 이루는 대학성과관리
- 사회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선도대학 지향

■ 자원관리 혁신

- ☞ 자율과 분권화 행정, 재정자립 토대의 확립!
- ☞ 자원관리 혁신과 함께 대학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원개발' 구체화!
- 1) 보적교수 자율추진권 및 경쟁실명제 정착
 - 총장은 대외적인 활동, 부총장직의 부서장중심제 학사행정 운영
 - 위임전결규정 등 제반 규정의 대폭 분권화 개혁
 - 보적의 서비스개념 정착 및 자율추진제 실시
- 2)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정확충
 - 총장 제임중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 적극적인 정부재정지원 확보: 연구비 연 1,000억 원 수주시대!
 - 기부/전입금 및 자산/투자수입 총고비회계(수입) 대비 30% 확보
- 3) '자원개발' 전략
 -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 새로운 개발가능한 대학자본 창출 및 조성전략
 - 새로운 인적, 물적 자원개발 유도: 종단, 재단, 총동창회와 공동대응
- 4) 총체적 대학운영역량 강화
 - 대학행정의 자율성확립과 책임지는 '정책실명제' 운영
 - 행정책임제 및 '협력적거버넌스'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제고
 - 참여행정의 강화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대학운영

■ '동국중심세계화' 혁신


- ☞ '인바운드 세계화'로 동국대학교의 정체성 확립!
- ☞ 동국이 사회의 등불이 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 지향!
- 1) 동국대-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 일본과 중국을 연계하는 구심체로서의 '동국중심세계화'
 - 전형적인 '한국형 대학' 구축으로 찾아오는 '인바운드 세계화' 구현
 - 해외 명문대학 및 유명연구소와의 실질적 교류사업 확대
- 2) 대학지식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
 - 국가발전 및 국정과정에서 동국의 역할과 위상 정립
 - 世方化(Glocalization) 차원에서 동국대학교의 역할 정립
 - 동국불교의 사회화와 세계화: '불교와 현대미술 비엔날레(에시)
- 3)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동국의 이미지 변신
 - 대학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모형 개발
 - 지역사회와 세계로의 '열린캠퍼스' 구현
 - 사회적 책임에 의한 세계화전략으로서 ODA의 '3세대 관계강화'
- 4) 교육과 연구 수준의 봉사프로그램 개발
 - 내부적으로는 인성교육의 실천장, 외부적으로는 동국의 위상제고 지향
 - 시민자원봉사의 실천을 통한 '동국형인재' 개발
 - 세계적인 교육연구 및 봉사네트워크 활성화



제 17대 총장 후보자 프로필 및 경영 계획서 - 한태식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후보

지면 순서는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순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지원서

공모직위명		동국대학교 총장		
사 전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글] 한태식(보광) [한자] 韓泰植(普光) [영문] Han, Tae Sik(Bo Kwang)	510329-		
	연 락 처			
	[자택전화]			
	[휴 대 폰]			
	[직장전화]			
	[전자우편]			
[주 소]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제지	학 위
1968. 3 ~ 1971. 1	경주고등학교		경주시	
1971. 3 ~ 1975. 2	동국대학교	불교학	서울시	문학사
1975. 3 ~ 1980. 2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	서울시	문학석사
1982. 4 ~ 1985. 3	일본 붓교대학 대학원	불교학	일본 교토시	문학박사
최종학위 논문제목	『新羅淨土思想の研究』			
1989년 2월 문학박사학위 취득, 지도교수 坪井俊映 박사				
경 력 사 항				
근 무 처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동국대학교	교수	교육, 연구, 학생지도	1987. 9~현재	
경도사	주저	사찰운영총괄	1982. 4~현재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연구원 운영	1998. 3~현재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처장	발전기금모금	1999. 7~2003. 2	임기만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대학원장	불교대학원업무	2003. 3~2005. 2	임기만료
수도기체화사단,30사단	대위	군종법사	1976. 4~1979. 7	임무면한전역

□ 관련분야 논문발표 업적

구 분	제 목	계제년월	계제기관
논 문	來迎院本 遊心安樂道の 資料的考察	1991. 12	『佛敎學報』27집
	頌歌에 나타난 元曉思想	1994.	『東國論叢』33집
	朝鮮. 清虛休靜의念佛禪について	2010. 3	『印度學佛敎學研究』 58-2호

※ 주요업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세부 사항은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별지)에 작성토록 함.

□ 포상 실적, 사회 기여 업적

일본 문부성 국비유학생활장학금 수여(1982. 4~1985. 3)
제42회 日本印度學佛敎學會賞 受賞(동경대학 소계 일본인도학불교학회(1991. 7. 10)
국무총리실 저술산고명화대역 연석회의 실무위원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대책에 기여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장, 화쟁위원으로 도제양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 국가(기업)발전 기여 업적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재직 중 학교발전기금 610여억원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에 기여
대외협력처장 재직 중 학술문화관에 대각전 조성 및 만불봉안불사 진행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재임 중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 개설로 불교계의 CEO 양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국가 인권신장에 기여

□ 국제적 활동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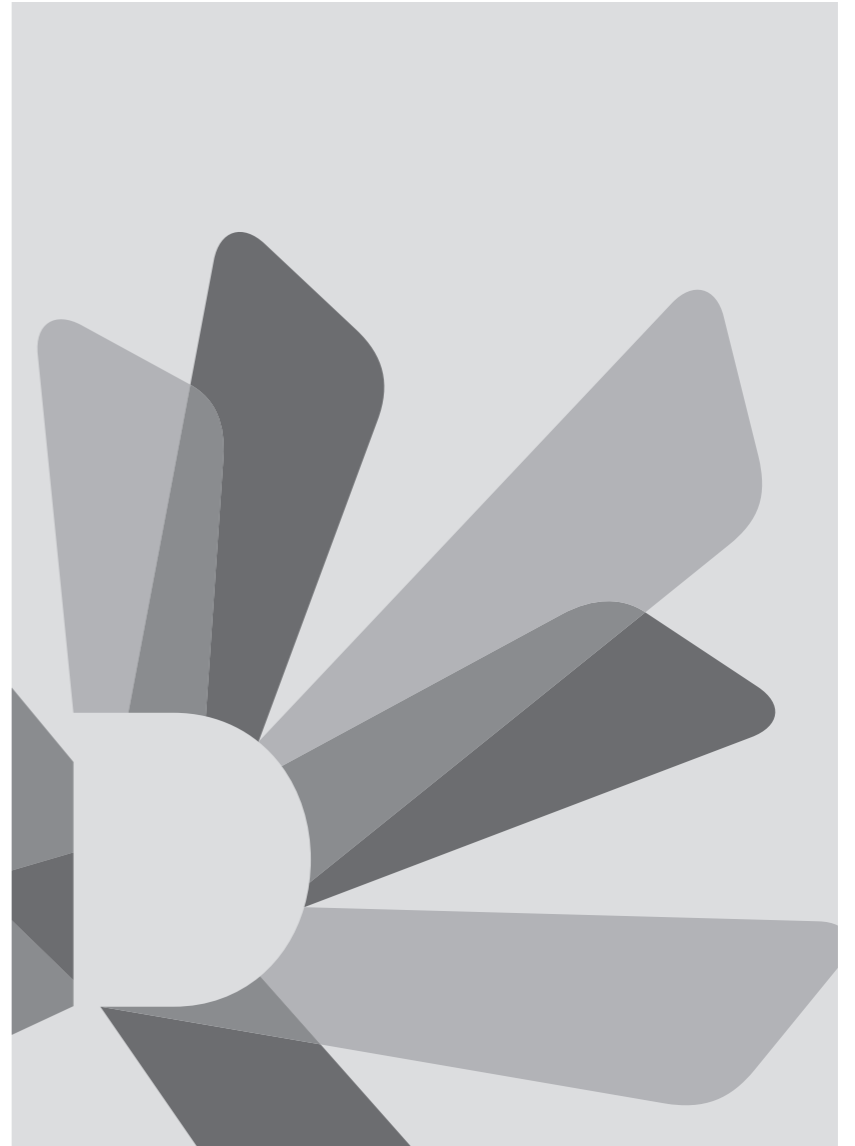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로서 『2002년 한일공동 인도학불교학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동국대학교에서 개최(2002. 7)
국제전자불전협회(EBTI) 공동회장으로 세계 각국 언어로 된 불교경전 전산화에 기여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위원으로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기여
몽골 바이마르양호수 살리기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국제자연환경보호에 기여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 원 자 : 한태식(보광) (서명)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학교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불교대학 불교학부
한태식(보광)

**“화합·소통·상생으로
동국중흥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건학 100주년이 지난 동국대학교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시점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동국중흥의 길은 아직 요원한데,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변화 요구로 불신과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구성원들이 화합과 소통으로 상생할 同行의 리더십을 갖춘 활기찬 리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저는 총장의 5대 同行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교발전 및 경영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5대 同行 철학(5C)〉
 화합하는 총장(Concord)
 통합하는 총장(Consolidation)
 양심적인 총장(Conscience)
 배려하는 총장(Consideration)
 함께가는 총장(Concurrence)

〈도약을 위한 5대 목표〉
 풍요로운 대학——발전기금 모금
 참사람 열린교육——건학이념 실천
 변화하는 대학——신바람 나는 캠퍼스
 새로운 의의가치 창출——일산병원의 경영 효율화
 미래로의 도약——세계로 비상하는 동국문화 창달

I. 4,000억원 기금모금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하면서 610여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였으며, 또한 <전자발전문화콘텐츠연구소>를 맡아 약 50억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때 외부기금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애로사항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계·동문·기업체·정부 등으로부터의 발전기금 모금을 총장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현재의 부총장제도를 개선하여 대외협력부총장을 두겠습니다.

“모금하는 총장, 풍요로운 대학”

1. 국내외 불교계·동문·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간 250억원을 모금하여 4년간 1,0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 국고지원과 교외 연구비 수주에 최선을 다하여 매년 500억원을 수주함으로써 4년간 2,000억원을 마련하겠습니다.
3.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대학에서는 2,000여명의 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대학과 야간대학 개설, 사회교육원 확장, 기타 교육사업 등으로 1년에 250억원씩 4년간 1,0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II.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건학이념을 실천하여 불교계와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립대학입니다. 우리 불교는 臨濟의 看話禪을 수행의 지침으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臨濟錄』의 無位眞人の 가르침을 현대교육에 응용하여 『참사람 열린교육』을 건학이념 실천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부대중이나 조계종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학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종단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수행생활을 통해 맺어 온 종단 및 국내외 불교계의 모든 인연을 학교발전과 재단 및 불교계의 위상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간화선의 수행방법을 전수해 오고 있는 전통 대승불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대승불교학과 선학의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 신심나는 동국”

1. 한국불교학의 특성을 살려 대승불교학과 선학의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대승불교학과 선학 연구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응용불교학과 전문분야의 불교인을 양성하겠습니다.
3. 동국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종단의 전국강원과 연계함으로써 불교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 각 전공에서 불교와 관련 있는 분야를 육성하여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5. 종단과 불교계로부터 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여 재단 전입금을 높임으로써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III. 변화하는 대학으로 동국의 기를 살려 구성원 간의 신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 일방적인 변화만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은 불신과 의욕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구성원들의 기를 살려 조직의 안정과 능동적인 참여로 신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불교계의 사부대중과 동국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Vision 2020 동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5대 同行 철학을 실천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동국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모아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同行 철학을 바탕으로 교수의 개별 브랜드화와 직원의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명품인재인 졸업생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특성화는 각 캠퍼스의 환경에 맞추어 최적화되도록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발전하는 대학, 명품 인재양성”

1. 발전하는 대학을 위해 불교학을 중심으로 하고,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CT, BT, IT를 특성화하겠습니다.
2. 구성원의 역할분담을 새롭게 정립하여 명품동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는 대학의 브랜드로서 개별 전공과 특성에 맞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2. 직원은 학교의 인프라로서 안정적인 직장문화를 바탕으로 구성원간의 신뢰와 화합을 이룩하여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3. 학생은 대학의 명품으로서 실력있고 보충할 수 있는 명품인재로 양성하고,
4. 사회는 대학의 고객으로서 우리의 명품인재를 채용하는 곳에 지속적인 A/S를 보장하겠습니다.

3. 명품인재양성을 위해 각 캠퍼스의 특성을 환경에 맞추어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 서울캠퍼스는 융합네트워크 캠퍼스로서 연구중심의 허브로 발전시키며,
2. 일산캠퍼스는 의생명클러스터 캠퍼스로서 의과대학, 약학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일산 양·한방병원을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인근 부대 이전시 교지로 확보하여 동국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3. 경주캠퍼스는 지역네트워크 캠퍼스로서 산학협력력을 위해 핵방패장, 양성자 가속기, 역사문화도시 관련 첨단연구센터와 학과를 신설하여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인재를 양성하며,
4. LA캠퍼스는 한의학의 특성화와, 미국이라는 이점을 살려 한국불교문화와 동국국제화의 전진기지로 삼고,
5. 서울 캠퍼스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사이버대학과 야간대학을 설립하고 사회교육원을 확장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IV. 새로운 의의가치의 창출을 통해 일산병원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일산병원의 경영효율화에 있습니다. 발전기금 확보를 총장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불교계와 동문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산병원의 지역적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분당 등 양·한방병원 5개의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원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성과급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겠습니다.

“일산병원의 장점을 살린 경영합리화 달성”

1. 일산병원은 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진료와 템플스테이 관광 쇼핑 등이 결합된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외불교계와 연계하여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으로 유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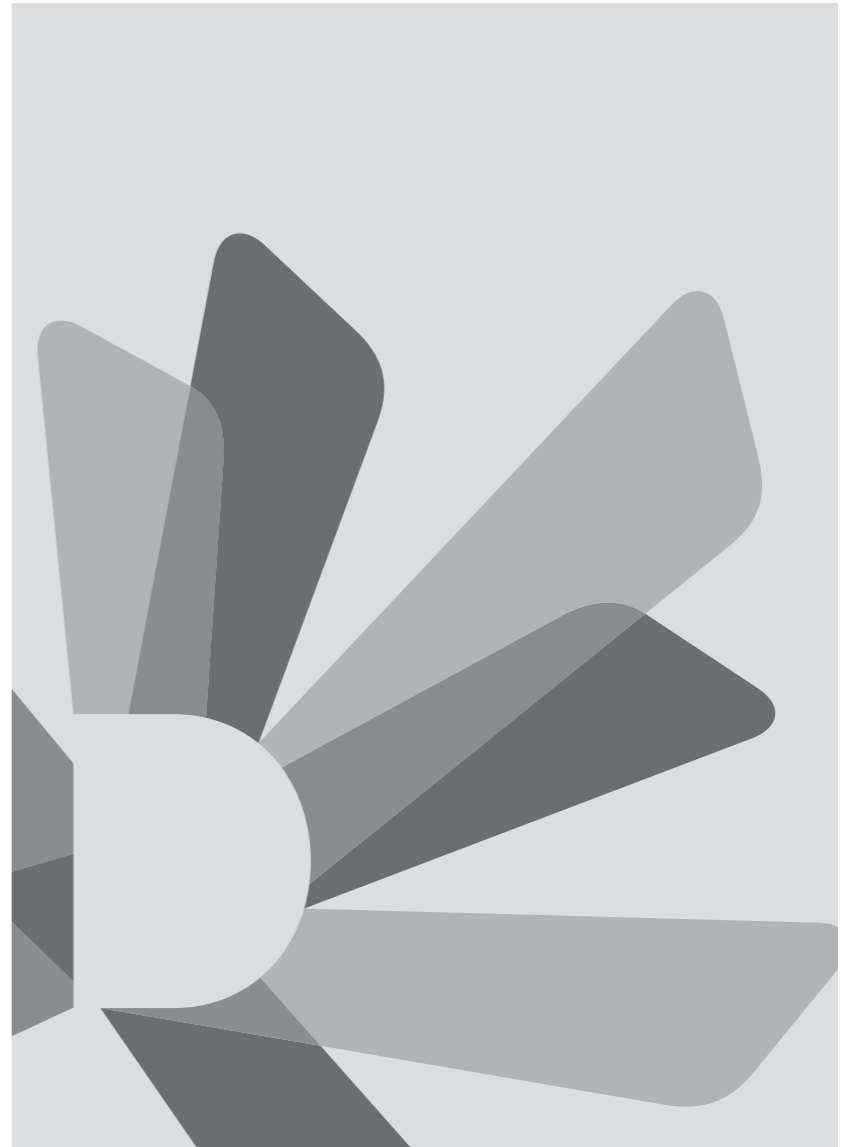
2. 국내외 의생명 분야의 석학을 초빙하겠습니다.
3. 의로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의생명 분야의 수익사업을 창출하겠습니다.
4. 성과급 제도를 활성화하여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병원발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총장 업무일정의 많은 부분을 병원에 할애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며 독려하겠습니다.

V. 세계로 비상하는 동국문화를 창달하여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전방안이라도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끌어내어,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한 동국의 기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5대 同行 철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 재단 교수 직원 동문이 모두 한마음으로 뛰어 자랑스러운 동국을 건설하고, 세계로 비상하는 동국문화를 창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동국의 기상”


1. 우리 대학의 위상에 걸맞게 교직원들이 수도권대학의 중상위 이상의 처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당한 평가 및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3. 학생복지를 향상시키고, 수업환경을 개선하며, 장학금을 유지하고, 외국과의 교환학생 및 학점교류를 확대하며,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 세계화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특성과 분야의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하며, 해외 석학을 적극 초빙하겠습니다.



제 17대 총장 후보자 프로필 및 경영 계획서 - 유석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후보

지면 순서는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순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자 지원서

공보적위명	동국대학교 총장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유 석 천	주민등록번호
	[한글] 유석천 [한자] 劉錫天		560117-
	[영문] Seuck-Cheun Yoo		
	연 락 처		
	[자택전화]		
	[휴 대 폰]		
	[직장전화]		
	[전자우편]		
	[주 소]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진 공	소 제 지
1970. 3 ~ 1973. 2	부산고등학교		부산
1973. 3 ~ 1977.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교육학 (전기 전공)	서울
1982. 9 ~ 1984. 6	미국 UCLA 경영대학원	경영학	미국 LA
1984. 9 ~ 1989. 6	미국 UCLA 경영대학원	경영학	미국 LA
최종학위 논문제목	A Queueing Model of A Multi-Server and Multi-Customer System		
	다양한 고객층을 가진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최적화 모형에 관한 연구		
경 력 사 항			
근 무 처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대우중공업(주)	엔지니어	설계	1977. 1~1977. 6
한국통신 경영기획실	선임연구원	경영기획	1990. 4~1992. 3
홍익대학교	조교수	경영정보학과	1992. 3~1995. 2
동국대학교	교수	경영학과	1995. 3~ 현재
동국대학교	연구처장	연구 및 국제화	2004. 7~2005. 1
동국대학교	기획처장	기획관련	2005. 1~2005. 8
미국 동국로얄대학교	총장	대학 경영	2006. 3~2008. 9

□ 관련분야 논문발표 업적

구 분	제 목	계재년월	계재기관
논 문	"공공 연구시설 활용 증진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3명 공동저자) 등	2010년 6월	한국경영학회
	전문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31편 지역서(공저 포함) 7편 연구과제 수행 및 참여 26건 등 총 64건의 학술연구 업적 (세부사항 별첨 참조)		

※주요업적을 간략하게 기술하며, 세부 사항은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별지)에 작성
토록 함.

□ 포상 실적, 사회 기여 업적


-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선정, "우수논문상", 1994
- * 한국생산관리학회 선정, "우수논문상", 2006
- *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1995-2005)
- * 한국경영학회 이사, 한국경영학회 편집위원장 및 이사, 한국생산관리학회 부회장, 정보통신경제학회 이사 등

□ 국가(기업)발전 기여 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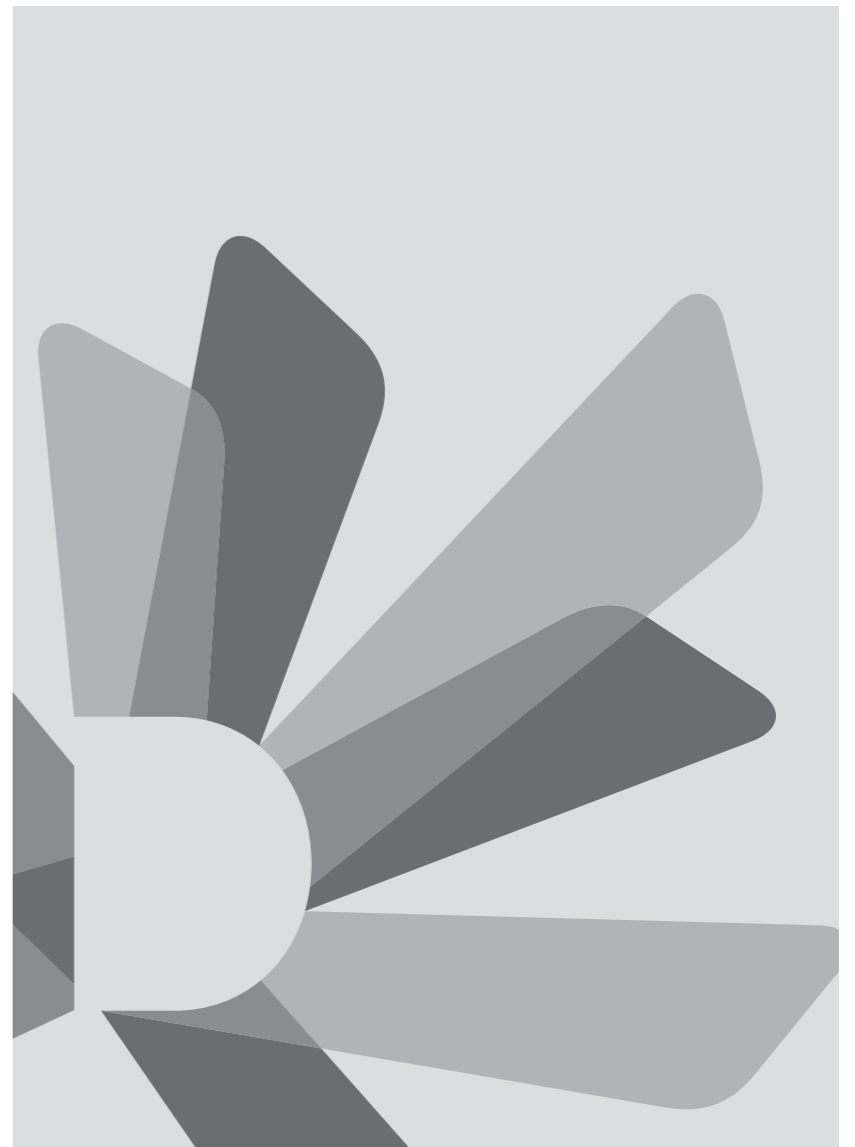
- * 정보통신부, 정책평가위원 및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등
- * 우정사업본부 운영위원
- * 방송위원회,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 한국이동통신(원 SK 텔레콤) 자문위원, 삼성 SDS 자문위원 등

□ 국제적 활동 사항

- * INFORMS-KORMS 2000 Academic Conference, Organization Committee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25 일
지 원 자 : 유 석 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귀하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경영학부 교수 유 석 천

우리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을 견학정신으로 삼은 대학입니다. 105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학이 축적한 유형무형의 자산과 씨앗들은 그 어느 대학보다 좋은 씨를 틔우고 꽃피울 수 있는 잠재력이 큼니다. 1,700년의 한국불교 전통과 학문 승상의 정신, 그리고 오늘을 이루게 한 20만 동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21세기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도약 발전할 수 있는 동국정신의 튼튼한 뿌리입니다.

최근에 약학대학 설치승인과 함께 일산캠퍼스 설립이 가시화되고, 숙원과제인 남산 대운동장 부지매입과 개발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경주 양 캠퍼스를 분리한 언론사 대학평가 순위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 흐름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원마련대책 등 결코 쉽지 않은 경영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숙고해야 할 문제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사명과 미래 준비에 과연 우리 대학이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사회변화의 흐름은 매우 빠르고 미래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대학은 다가올 지식사회의 중심으로서 튼튼한 시스템과 선도적 역량(First Mover)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책임질 실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그에 대한 지속적인 질적 관리(CQ: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가 대학 본연의 핵심적인 경영과제입니다.

총장 후보자로 지원을 결심하면서 이러한 인식 아래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였으며, 동료교수들을 비롯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과 정관계 지인들의 폭넓은 자문을 받아 우리 대학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그리고 경영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현실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미래의 초석을 다지고, 동국중흥의 씨앗들을 싹틔우기 위한 대학경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한 소견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 전 *Ultra : Human*Tech. in ABC

*Ultra는 '끊임없는 자기초월'을 뜻한다. 이는 동국인의 창의성 추구하고 도전정신을 표현한다. **플러스 울트라**는 융합정신으로 실천 수행하는 구도자의 정신이 함축된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眞言)과도 상통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가자. 가자.彼岸으로 가자. 우리 함께 彼岸으로 가자. 아, 깨달음이며. 永遠하여라.

Human*Tech.는 인문정신과 첨단기술의 융합이다. 고전에 바탕에 둔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토대로 한 첨단학문의 융합은 대학의 미래 변화를 이끄는 힘이다. 이러한 융합의 정신으로 100주년 이래 우리 대학의 ABC 특성화 전략 분야인 Asia(지역), Bio(생명), Culture(문화)의 한 단계 높은 질적 도약을 추구한다.

*Ultra : Human*Tech. in ABC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에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미래 동국의 역원을 담은 새로운 비전이다.

교육목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협창적 인재 양성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글로벌화 된 지식기반사회에서 직면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라는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의 핵심은 '협동성'과 '창의력'이며, 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말이 협창성(Collaborative Creativity)이다. 따라서 '협창적 인재'는 사람과 사람, 학문과 학문 간의 협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대학이 추구해야 할 교육목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협창적 인재 양성'이다.

기본 경영전략 교육 본연의 CQ·씨앗경영

1. 왜 CQ경영인가?

대학경영은 교육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단기적 성과에 의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다수 대학들이 빠른 대학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의 조급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대학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계량적인 평가지표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고, 교육목표가 왜곡되고 교육철학이 없는 대학경영을 초래했다.

이제 대학은 외형적, 양적 성장 위주가 아닌 **확실한 교육목표 아래 교육과 연구의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대학의 핵심과제로 삼는 CQ경영이 추구되어야 한다. CQ경영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수준 높은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지표성과를 당장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육의 목표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 본연의 CQ경영은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대학을 만드는 일이다.**

2. 왜 씨앗경영인가?

대학발전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워 장기전략 없이 대항 사업을 벌여 그 후유증으로 허려 대학발전이 정체되는 위기를 우리는 경험했다. 씨앗경영은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훌륭한 농부는 가장 좋은 씨앗을 바로 먹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파종한다. 이것이 씨앗경영의 정신이다.

씨앗경영은 일상적인 대학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부터 중장기사업까지 일관되는 경영전략이다. 기본적으로 등록금 수입 등 교비예산은 교육과 연구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기본역량을 튼튼하게 갖추기 위한 우수교원 조빙과 미래가치가 큰 연구에 집중하여 투자한다.

지금 우리 대학은 단계적으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예산수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착공한 시설건축비만 2011년에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당장 수천억의 재원을 끌어와야 동국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심고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싹을 틔울 수 없다. 우리 대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잠재된 역량을 일깨우는 일이 씨앗경영의 시작이며, 우리 스

스로 앞장서야 성공한다. 동문들과 불교계, 지역사회는 우리의 진정성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 대학발전에 동참할 것이다.

교육 본연의 CQ경영과 씨앗경영은 2015년까지 국내 7대 사학의 위상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5대 사학의 기반을 확립하는 가장 빠른 정도(正道)가 될 것이다.

3. 주요 전략과제

전략과제 1 교육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질적 관리

- 핵심역량(core competency)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편
- 협창성을 기르기 위한 기초교육(인문교육, 기초과학교육) 강화
- 융합형 학문구조 지향
- 지속적 질 관리(CQ)를 위한 강의평가 등 교육평가시스템 개선운영
- 품성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상시정원관리 시스템 발전적 수정보완
- 창의적 인재발굴을 위한 입시전형(Do Dream 전형 확대 등)
- 도심형 대학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략과제 2 연구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질적 관리

- 4년간 110명의 우수교수 초빙을 위한 *Ultra Faculty TF 구성
- 연구 Core faculty 선정과 집중지원
- 기초학문과 경쟁력 있는 분야의 일반대학원 선택적 활성화
- 특성화전략에 따른 교직원연구기관 시스템 정비와 연구수행역량 강화
- 실효성 있는 연구 인센티브제도 시행
- 산학협력 중심의 연구지원 시스템 개선

전략과제 3 구성원을 존중하는 소통과 공감의 경영

- **학생부문**
 - 학생경력개발 통합시스템 구축과 진로지도
 - 원스톱(One-stop) 학생서비스(Academic advisory)
 - 학습 환경 개선 (강의실 업그레이드/도서관 상시 개방/정학급 확충 등)
 - 생활복지환경 개선 (창의적 대학문화 조성/미디어 활용과 소통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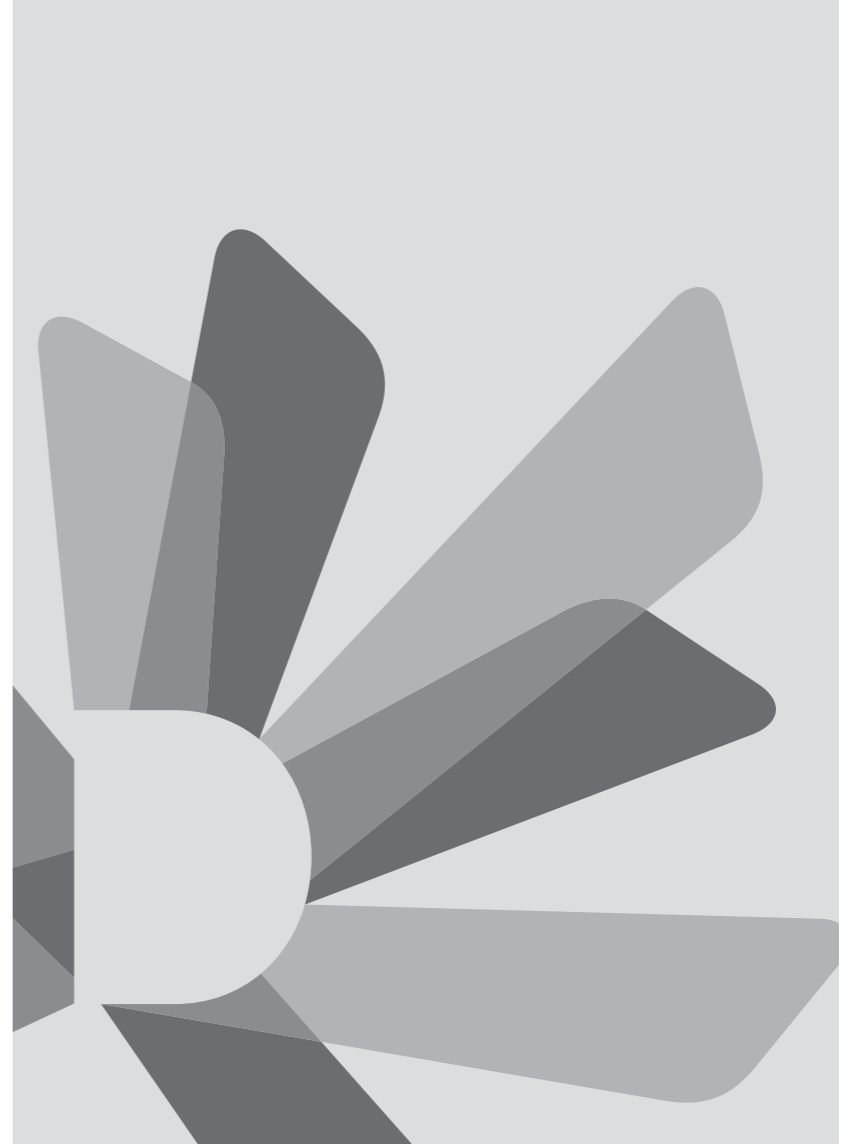
- **교수부문**
 - 학교 전반에 관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상시로 폭넓게 수렴하는 장치 마련
 - 교수 자긍심과 책무성 고양을 위한 처우 향상방안 마련
- **직원부문**
 -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개선
 - 실효성 있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직장 분위기 조성
- **동문 및 지역사회**
 - 동문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동창회 네트워크 지원
 -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과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시스템 기반 조성

전략과제 4 지속발전을 위한 씨앗경영 정착

- **단기적 재정 안정화**
 -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업과 부지매입의 안정적 완료를 위한 재원마련
 - 연간 예산 절감목표 1백억 원
 -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실행 역제와 추진전략 재수립
- **중장기 씨앗 프로젝트**
 - 바이오 메디클러스터 사업 전략기획 - 2020년(3천억), 2030년(1조원) 목표
 - 국가전략연구프로젝트 참여 확대 기반조성 - 2020년(3천억) 수주목표
 - 4년간 발전기금 조성 - 명분 있는 특정목적기금 1천억 목표
 -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육성 - 특허기술기반 지주회사, 콘텐츠기반 학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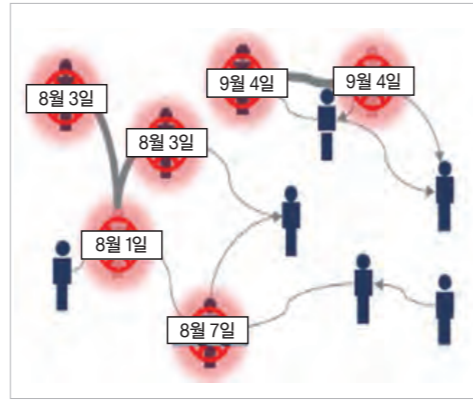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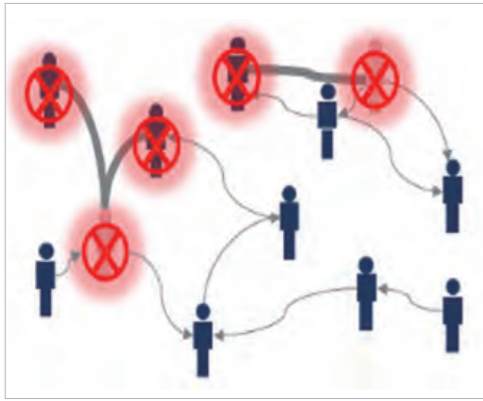
전략과제 5 한국 불교의 르네상스를 위한 건학이념 실천

- **한국불교학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 불교대학과 불교학술원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종단과 교육연구 협력기반 조성
 - 우수한 불교학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
 - 현대적 역경사업 추진과 역량 전문인력 양성
 - 4년간 한국불교학 진흥기금 100억 조성 목표
- **불교 Social Network Hub 구축**
 - 불교종합DB 구축 (대장경, 불교문헌, 불교학연구자료, 사찰정보 등 전산화)
 - 불교 문화콘텐츠 개발과 불교문화사업 지원
 - 불교콘텐츠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서비스 실시
 - 불자대중을 위한 사이버 불교교양강좌 개설
- **한국불교 세계화 인력 양성**
 - 템플스테이 전문가이드 양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동아시아 국제협력 전문가로서 불교적 소양을 갖춘 문화인재 양성



인간의 사회적 특성 이용 예측모형 개발

전원배 박우용 김세종 군, SAS 마이닝 챔피언십 금상 수상



▲ 가입자 이탈 네트워크 (왼쪽) ▲ 가입자 이탈 일자 네트워크 (가운데) ▲ 왼쪽부터 전원배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박우용(산업시스템공학과 3), 김세종(산업시스템공학과 3).

사람이 모여서 사회(소셜)가 된다. 사람들이 이루는 관계가 곧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이다.

흔히 소셜네트워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Facebook, Me2day, Cyworld, Tweeter 등은 컴퓨터 상에서 사람들간의 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이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원인 분석

이에 비해 소셜네트워크는 '인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셜네트워크는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 자연을 연구하는 물리학,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이루는 관계를 분석하는 분야는 소셜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이라고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사소통을 분석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내고

자 함이 SNA의 목적이다. 사람이 가진 특성(Attribute)이 아닌 사람들이 가진 관계성(Relation)을 통하여 무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과 본교 산업시스템공학과 3학년 박우용, 김세종은 제8회 SAS 마이닝챔피언십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한 통신사의 고객 이탈 방지 예측모형 개발'이라는 주제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소셜네트워크정보를 활용하여 이동통신사 사용자 통신고객이 이탈하는 원인을 찾고 사전에 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주제였다.

소셜네트워크 정보이용 이탈자 예측

기존에 데이터마이닝모형에 소셜네트워크정보 '가입자가 속한 커뮤니티 속성', '커뮤니티에서의 역할', '커뮤니티의 리더의 행동', '고객 통화대상의 특성'를 결합하여 고객이탈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짧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있으므로 특정가입자가 이탈하면 그의 친구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로

사용된 정보였다.

여러 우연들로 인연이 되고, 여러 우연들로 세상이 만들어진다. 좋은 팀원들, 후배들을 만나는 우연을 얻었고, 적절한 시기에 SNA를 접했고, 회사에서 경험 했던 주제가 나오는 우연도 있었고, 관심있는 통신사데이터를 분석하는 우연도 있었다.

이런 우연들 덕분에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인연과 우연, 그리고 인맥을 분석하다

소셜네트워크는 인맥-인연을 의미하고, 인연은 우연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학원과정 학생으로 학부과정 학생들과 소통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우연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얻었다는 것에서 지난 4개월의 공모전이 바로 새로운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원배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정효진 교수의 독서산책

곤충학자의 고래 : Moby Dick



모비딕

지은이 허먼 멜빌
펴낸곳 작가정신
옮긴이 김석희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드라마 CSI: Las Vegas Season 6, Episode 24에서 그리섬은 연인인 세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Most people want to die in their sleep, I suppose. Never know that it's happening. Like a crime scene. I'd prefer to know in advance that I was going to die. Have some time to prepare. Go back to the rain forest one more time. REREAD MOBY DICK. At least have enough time to say good bye to the people I love."

이 대사는 "은퇴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극 중 과학수사대의 반장인 길 그리섬(Gil Grissom)은 곤충학자이며 방대한 독서량을 통해 수많은 명언을 범죄현장과 용의자 심문, 팀원과의 대화에서 쏟아내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다. "열대우림 지역에서 '모비딕'을 읽고 싶다."고 말하는 곤충학자! 그의 고래, '모비딕'을 같이 읽어 보자.

'모비딕'은 허먼 멜빌의 소설에 등장하는 머리가 흰 거대한 고래의 이름이며 '백경(白鯨)'이라는 제목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이 작품이 출간된 1850년대의 미국은 신생 국가의 모습인 거친 개척자의 생활이 기반이었으며,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청교도적인 엄격한 종교 정신을 강조했으며, 한편으로는 자유와 민주 정신이 싹트는 현장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모비딕'은 상징적 소설이자, 실용주의적 측면에서는 고래에 관한 독립적인 에세이 모음집이기도 하다.

피쿼드호의 선장 에이합은 한 쪽 다리를 고래에게 잃고 고래 뼈로 만든 의족을 달고, 언제나 복수심에 불타는 광인처럼 하얀 고래를 잡으려 풍랑을 헤치고 달린다. 피쿼드호는 몇 주 동안 끝없는 대양을 항해한다. 피쿼드호와 선원들은 흰 고래를 발견하고 사흘간 싸움을 벌이지만 그 흰 고래 '모비딕'은 피쿼드호를 선원들과 함께 영원히 바다에 가라앉히고 만다. 그런데 단 한사람 이스마엘만 생존하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짧은 요약에서도 드러나듯이 '모비딕'의 상징성은 인간의 욕망과 복수, 희생과 재앙, 그리고 자연 혹은 우주의 섭리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끝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가는 에이합의 도전 정신,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극적으로 살아남은 퀴퀘그가 보물처럼 간직한 그의 작살과 배의 생활을 떠날 수 없다는 신명, 종교와 문화가 서로 다른 이스마엘과 퀴퀘그와 싸웠던 우정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모비딕'은 앞만 보며 달려온, 또 앞만 보고 달려갈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섬처럼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별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일까?

(교양교육원 교수)

화제의 책

죽음, 인생의 마지막 과제



내 젊은날의 숲

지은이 김 훈
펴낸곳 문학동네
12,000원 / 344쪽

김훈 소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죽음이다. 아내의 죽음을 다룬 '화장'을 시작으로, 남편의 죽음('언니의 폐경')과 화자 자신의 죽음('강산무진')을 작가는 섬뜩하리만치 냉정한 필체로 부조(浮彫)해 왔다.

김훈소설의 단골메뉴, 죽음

그의 작중인물은 가족과 자신의 죽음을 냉정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내면으로는 부하 여직원의 모습에서 젊고 건강하던 시절의 아내를 투사하는 애절하고 웅숭깊은 사랑을 보여준다.

'화장'과 '강산무진'의 화자는 가부장제의 마지막 세대답게 슬픔과 분노,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철저히 내면화한다.

그들의 슬픔과 절망은 내출혈을 일으켜 더욱 뜨겁고 단단하게 응결된다.

김훈의 신작 장편 '내 젊은 날의 숲'의 큰 주제 역시 죽음과 관련된다.

이 소설에는 화자의 할아버지, 그가 기르던 말, 아버지, 그리고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투에서 산화한 수많은 죽음이 겹쳐진다.

소설은 미대를 졸업하여 민통선 내 수목원의 세밀화 계약직원으로 취직할 화자의 체험과 가족사가 중황으로 엮이면서 사람살이의 오욕과 애증, 사물(사람)의 이중성,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 등 일상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문제까지 확장된다.

죽음 소재로 형이상학 주제까지

화자의 조부는 만주에서 지냈지만 독립운동 경험을 인정받지 못했고, 지방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뇌물 및 알선수재죄로 수형 생활을 한다.

화자와 어머니는 그와 거의 인연을 끊다 시피하고 지내지만, 화장장에서 어머니는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오열을 터뜨린다.

그녀가 밤잠을 못 이루며 딸에게 전화를 해던 까닭은 가족을 위해 장녀와 포주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불쌍하고 미안해서였던 것이다.

화자와 아버지는 "미안하다"와 "괜찮아요, 아버지"란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다.

그런 점에서 슬픔은 온전히 살아 견디는 자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슬픔은 살아견디는 자의 몫

화자는 꽃과 나무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를 차츰 인식해 나간다. 수목원과 군부대에서 굳이 화자에게 연필 세밀화를 의뢰한 까닭은 기계가 사람의 느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사진은 대상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와 그 아득한 거리까지 그려내지 못한다. 화자가 꽃과 나무, 전사자의 유골 그림을 두 장씩 그리는 것도 관찰만으로는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삶은 사랑하므로 견딜만 한 것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화자는 수목원에서의 마지막 과제를 완성한다.

나무의 겨울눈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숨겨진 모습이 달라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실제의 형상과 내부를 열어 확대경으로 들여다 본 해부도 두 점으로 그려진다. 꽃과 나무는 한해살이로 생을 마치기도 하지만 이듬해 새생명을 얻어 생사를 반복한다. 그것은 인공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러할 테지만, 서로 사랑하므로 견딜만하다. 그 삶의 과정이 추잡하고 욕된 것일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점을, 이 소설은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다.

장영우 문예창작학과 교수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수상 수상자 인터뷰 교수·선배들 격려와 도움이 큰 힘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2010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위형용(물리4) 군과 조창용(물리2) 군의 말이다. 위형용 군은 "작년에 같은 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다"며 "지난해보다 더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창용 군도 "나보다 주변에서 더 기뻐하는 것 같다"며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위형용 군은 "대회 준비기간이 촉박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에는 물리학과 교수들과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다. 위 군은 "강태원 교수님과 조훈영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며 물리학과 교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선배인 이동화(물리학과 박사과정)씨는 특허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다. 이러한 물리학과 교수들과 선배들의 도움은 물리학과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총 3점이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힘이 됐다.

이번 대회에서 위형용 군과 조창용 군이 선택한 주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제한 'RFID/USN 관련 특허'다. RFID는 고주파를 이용해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로 인식 거리가 넓고 숨어있는 물체도 인식 가능해 미래 유망 기술이다.

또 USN은 RFID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형용 군과 조창용 군은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품을 선택할 때 국내 제품 중 전자인증 된 RFID 제품만을 대상으로 정했다. 그들은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찾아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기업관계자와 연구자들에게 제품의 대상을 명확히 해 줄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오충현
바이오휘경과학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2010년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묻혀버려 '생물다양성의 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저물어가는 것이 매우 아쉽다. 유엔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손실(損失)속도를 줄이고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認識)을 높이기 위해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전(保全)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종의 다양성을 넘어 종 내부의 유전자의 다양성,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의 다양성, 서식지들이 구성하는 경관의 다양성을 보전하자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종 하나만을 보전하는 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지 환경을 같이 보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동물원이나 식물원, 수족관 등에서 종을 보전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야생(野生)생물이 가지는 야생성은 사라지고,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전을 위해서는 동물원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반달가슴곰이 살아가는 서식지 환경 전반을 보호하여 반달가슴곰과 함께 그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동식물을 같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성장의 속도에 비례하여 전국토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毀損)되었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야생동물 서식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개발과정에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크게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같은 하천정비사업, 신도시 조성사업과 같은 개발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건설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지만,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계획, 이를 위한 다양한 대체서식지 확보 등과 같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 국토는 이제 조금 숨 돌릴 여유를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2010년 '생물다양성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사라진 수많은 생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강산(江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토에 있는 모든 생명을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란다.



동문칼럼

손상우
인도철학 09졸
아마추어 산악가

여기는 알프스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2010년 7월 18일 나는 그토록 열렬히 소망하던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정상에 섰다. 이를 축하하듯 새하얀 설산(雪山)들이 나를 에워싸고 축하의 향연을 열어 주었다. "분명 사람의 눈은 이러한 것을 보라고 신께서 선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순간 당연히 세상의 주인공은 나였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나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군 전역 후 본격적인 자격증 전쟁에 뛰어들었고 복학을 했을 때는 취업이라는 거대한 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취업에 성공했으나 정작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젊은 시절에 대한 후회였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틀을 한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났다. 삶의 한계를 정해놓고 나 자신과 타협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도 지쳐버렸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삶의 의미조차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인생이 한없이 슬퍼졌고 우울해졌다. 결국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을 깨고 일탈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

영화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보고 영감(靈感)을 얻은 나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무작정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럴 때 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뭐 먹고 살 것이냐" "정신 차려라"라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고 나는 "평생 먹고 사는 걱정만 하다가 죽어라!" 라고 되받아 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77개의 꿈의 리스트 중에 53개의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 최고의 날을 갱신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로 도전하고 있다. 결코 그 당시에 있었던 나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드디어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말이다.

대학 1학년 교양수업 시간 중에 한 교수님

이 인생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던 질문이 기억난다. 지금 만약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인생은 70장짜리 단편소설"이며 "매 페이지 마다 도전과 꿈으로 채워나가는 일련의 예술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삶의 남은 장(章)을 무지(無知)로 매울 것인지 두려움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지는 자기 자신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하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해야 인생이 즐거워지는 법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커피숍으로 달려가 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메모지에 적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한장 한장 자신의 꿈을 현실로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젊음이라는 특권을 외면하지 말자.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보고 죽자! 더 늦기 전에 TAKE ACTION! RIGHT NOW!



학생칼럼

유성은
경제학과 3학년

다문화 사회로의 인식 전환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에 외국인(外國人) 1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선진국 국민을 보는 시각과 개발도상국 국민을 보는 시각은 많이 다르다. 선진국 국민이 한국에 오는 것은 기쁘게 생각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에 오는 것은 돈을 벌기위함이나 차별과 무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적이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잘살지 못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선진국으로 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인권침해 경험은 임금체불과 폭행이었다. 그들이 동료나 상사에 의한 욕설을 들으면 서도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자

신만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 때문이었다.

한국의 출산율(出生率)은 계속 줄어들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노동력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비교해보면, 2006년 미국은 이미 15.4%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재 한국은 2.2%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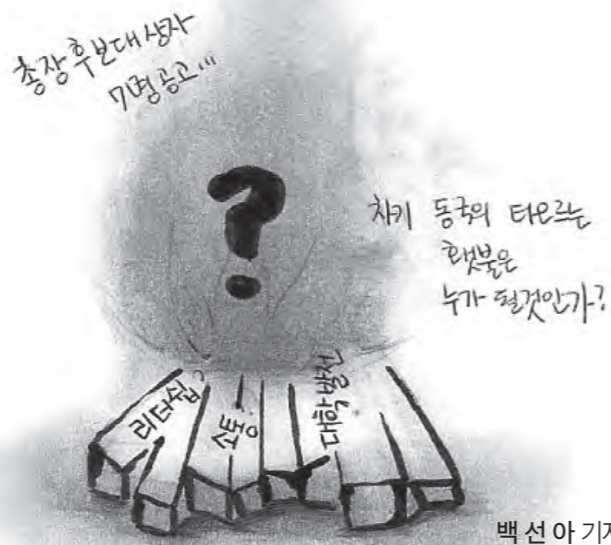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일(單一)민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가 더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일반 한국 학생들과 구별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은

한국인과 다른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어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발도상국 국민을 한국보다 못살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신 수녀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왜 한국어만 가르치려 하나며 그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변화된 마음을 가져보라는 뜻 깊은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는 다문화, 즉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한국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한국인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문화는 한국문화와는 다른 흥미로운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만평



백선아 기자 amy@dgu.edu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 만든...

동옥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옥식품 부산 와운자연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인준)

문의 전화 :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어약자

자매품

Choco DONGOKGO
Dongokgo Chocolate
초코 동옥고

자매품 초코동옥고는, 동옥고를 섭취하는 분들에게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옥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옥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옥고"와 "초코동옥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TEL. 02-2260-8949)



시론

김상경
법학과 교수

연평도사태와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

연평도사태로 인한 국가의 비상상황이 점차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다.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낸 연평도 곳곳에는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피해가 참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모든 관심이 연평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재빠르게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국방예산안을 심의하여 오랜만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그 와중에서 자신의 일도 재빠르게 처리하여 국민의 지탄을 사고 있다. 즉 국회의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5% 올리는 내용의 국회 소관 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의결하였다.

국회는 국가권력의 한 축으로 입법(立法)을 담당하며,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서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이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

출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국정을 담당(擔當)하면서 무보수로 봉사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법률의 제정 등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연 1억 원이 넘는 세비(歲費)를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매년 조금씩 오르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2년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시비하기는 어렵다.

국회는 이번 의원의 세비 인상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리 과한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국회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국가적으로 비상사국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 불안해하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할 시기이다.

더구나 수출의 호조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국민은 내수의 부진과 실업난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책임기관으로서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국방 현안(懸案)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적 현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어떻게 세비 인상에서는 이렇게 의기투합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금은 전방인 북한의 도발 앞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하필 이런 시기에 자신의 뒤편 행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제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正當性)에 걸 맞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의원 세비는 국가가 안정된 다음에 인상해도 된다.

사설

반복되는 투표율 저조, 근본적 해결책 찾자

학생회 선거가 지난 2일 종료(終了)됐다. 개표 결과, 투표율이 51.71%로 과반수를 겨우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투표율은 비단 이번 선거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몇 년간 지속돼온 문제다. 올해 선거가 지난해처럼 선거 마지막 날,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연장 선거를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계속되는 투표율 저조 현상은 학생회의 대표성을 취약(脆弱)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회의 활동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또 제한된 학생회 활동은 다시 낮은 투표율로 연결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학생회의 미약한 입지,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학생회가 대학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학생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투표, 선거기간의 변경 등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또,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의식도 제고(提高)돼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외기구로 대학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무관심하다면 이는 문제가 크다. 학생들은 교육환경 개선 요구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은 한 사회의 미래다. 학생회 선거에서 매년 반복되는 투표율 저조현상을 무관심하게 넘겨거나 인기응변의 방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문제의 근본을 직시(直視)하고 진정한 대학 공동체를 건설(建設)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리로 인해, 온정의 손길 끊어선 안 된다

12월은 나눔의 계절(季節)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자선냄비는 전국 76개 지역에 300여 개가 설치돼 오는 24일까지 성금을 모은다. 구세군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 늘어난 42억 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여파로 성금 모금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스럽다. 또 온 국민의 관심이 연평도로 쏠려 있어 얼마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 불우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식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입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약화(弱化)된 것이다. 추운 겨울에 희망을 나누자는 의미의 '사랑의 온도탑' 조차 만들 수 없게 됐다. 불우이웃성금 모금을 총괄한다는 단체가 이런 지경이니 참담하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성원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도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은데 안타까울 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라를 대표하는 성금 모금 단체인 만큼 조직을 혁신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34만여 명이다.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이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 비리 여파로 온정의 손길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솔선해 불우이웃을 돕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메아리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임중도원(任重道遠)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말은 논어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로, ‘할 일은 많고 무거운데 가야할 길은 멀다’ 혹은, ‘책임은 중한데 도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풀이된다. ‘임중도원’은 선비의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글귀 속에서 등장한다. ‘임중도원 인이위기임(任重而道遠 仁而爲己任)’. 선비의 책임은 무겁고, 도의 길은 멀기 때문에 ‘인(仁)’으로써 몸소 실천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나라를 이끌어가던 선비들이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努力)했다. ▲지난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연평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으로 변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평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됐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등 포격으로 인한 몸의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물으로 피난한 주민도 있다. 게다가 포격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연평도에 잔류한 주민들과 인천 등 육지로 피난한 주민들 모두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격 이후 연평도는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인천시는 ‘나 몰라라’하는 분위기다. 피해 인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언제 대피소로 피난해야 할지 모르는 위급(危急)한 상황인데도 대피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육지로 피난한 주민들 역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인천의 한 찜질방을 운영하는 시민이 연평도에서 피난 온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작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책은 미비(未備)한 실정이다. 발 벗고 나서서 연평도 주민을 도와주는컸ner,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대책마련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21세기인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선비의 자세를 요구(要求)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인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진리임에 틀림없다. 어진 마음을 가진 지도자라면 때 아닌 아비규환 속 절규하고 있는 국민을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을 것이다.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하기에는 그들의 지위와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옛 선비들이 그러했듯 ‘임중도원 인이위기임’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연평도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유훈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최진아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60-4907

기말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201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12.06~17일) 중 면학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물	구분	개관시간(토, 일요일 포함)
중앙도서관	자료실	08:00-22:00
	4층 열람실	24시간(제2열람실)
	별관 열람실	24시간
법학도서관 (만해관)	자료실	08:00-22:00
	열람실	24시간

※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도서관 에티켓 준수 : 좌석 사석화, 한 사람이 여러 자리 잡아 주기 등 비내너행위 금지

2. 시험기간 중 열람실 1회 좌석배정시간 조정

가. 일시 : 12.06(월) ~ 17(금)
나. 대상 : 열람실 전체(중앙도서관 4층, 만해관 1층, 별관 열람실)
다. 조정내역

평시	시험기간
1회 5시간, 3회 연장 가능	1회 3시간, 5회 연장 가능

3. 강의실 대관서비스

가.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에서 대관하여 열람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대관 강의실 및 대관시간 :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중앙도서관

취업역량강화 CUP 모집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졸업예정자와 4학년 1학기생을 대상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취업스킬+토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토의와 취업스킬, 취업현실과 눈높이 조정 등을 통해 참가자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명 : 취업역량강화 CUP 모집(겸, Career Upgrade Program) CUP 프로그램이란?

취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에게 채용정보 제공, 취업스킬교육, 잠재성, 토의해법을 통해 성공 취업을 적극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2. 교육장소 : 교내 지정 강의실

3. 교육일정 : 12월 27일~1월 21일까지 4주간

매주 월~금요일 09:30~17:00 까지 (휴폐이시 일정보 참조)

4. 프로그램 내용(특전)-> (실제 인 90만원 상당 프로그램)

- 1) 토의 초·중급 1일 5시간 프로그램 4주간 무료 제공
- 2) 4주간 1일 8시간 출석 의무와 특별 관리
- 3) 전문 점진성터너의 취업정보, 잠재성 제공
- 4) 취업성공 입사지원서 작성법 특강 및 개인지도
- 5) 서류통과자에 대한 개인별 모의면접과 면접 비법 전수

5. 신청기간 : 2010.11.24(수)~12.17(금) 선착순 50명

6. 신청대상자 :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미취업자(4학년 1학기생 포함)

7. 신청자격 (신청자중 50명 선별함)

- 1) 위 기간 중 95% 이상 프로그램 참여가능 학생
- 2)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미 참여 학생
- 3) 진로 목표를 최근에 변경하여 취업준비가 부족한 학생
- 4)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스킬이 부족한 학생
- 5) 우량 중견기업이라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 6) 전일정 참여 가능자(오전 or 오후 일부 일정만 참여 불가)

* 예외 : 단과대 특성상 불교 사범대,법과대,예술대 학생들은 위 1-5번 신청자격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요건에 상관없이 취업의지가 강한 학생의 경우 특별 대상 선정.

8. 신청방법 (02-2260-3056)

1)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송부 sh0317@dongguk.edu + 참가비 입금

9. 선발방법

- 1) 선발인원 : 50명 선별 예정
- 2)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취업공지를 참조하세요.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금주의 식단

월(12/6)	비빔만두(2200)/치킨가스(2500)/오삼불고기(2200)/라면사리부대찌개(2500)
화(12/7)	두부김치(2200)/치즈돈가스(3000)/새우볶음밥(2500)/우거지갈비탕(3000)
수(12/8)	갈비경단(2200)/치즈돈가스(3000)/불고기김치비빔밥(2500)/사브칼국수(2500)
목(12/9)	간짜육(2200)/스파게티정식(3000)/김치볶음밥(2200)/버섯전골(2500)
금(12/10)	소세지두루치기(2200)/왕돈가스(3000)/해물달걀(2200)/사골왕만두국(2800)

월(12/6)	갈비경단(2200)/치즈돈가스(3000)/낙지콩나물탕(2200)/순두부찌개(2500)
화(12/7)	탕수육(2200)/치킨가스(2500)/고추잡채달걀(2200)/만두전골(2500)
수(12/8)	두부김치(2200)/고구마돈가스(3000)/치킨소스덮밥(2200)/우거지갈비탕(2800)
목(12/9)	비빔만두(2200)/돈가스(2500)/버섯덮밥(2200)/사브칼국수(2500)
금(12/10)	고추참치(2200)/피자돈가스(3000)/카레라이스(2000)/매운소갈비찜(4000)

월(12/6)	돈육콩나물탕(2200)/돈가스(2500)/불고기당면덮밥(2500)
화(12/7)	오삼불고기(2200)/불돈가스(2800)/날치알김치볶음밥(2200)
수(12/8)	낙지덮밥(2200)/버섯우육장(2500)/카레라이스(2200)
목(12/9)	체육청경채달걀(2200)/치즈돈가스(3000)/새우볶음밥과 자정소스(2200)
금(12/10)	유산술덮밥(2200)/돈볼치잡살(3000)/달걀비빔밥(2200)

월(12/6)	해물덮밥(2200)/고구마돈가스(3000)/날치알김치비빔밥(2200)
화(12/7)	달걀비빔밥(2200)/불고기당면찌개(2500)/카레라이스(2000)
수(12/8)	체육떡볶음(2200)/치즈돈가스(3000)/불고기숙주덮밥(2500)
목(12/9)	소세지김치덮밥(2200)/치킨가스(2500)/달고나비빔밥(2200)
금(12/10)	양송이덮밥(2200)/낙지돌솥밥(2800)/매운오삼볶음밥(2200)

동악에 부는 훈훈한 봉사의 바람

참사람봉사단, 교수 학생 직원 하나돼 김장담그기, 연탄배달 봉사 등 참여



“우리가 돌보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준다” 평생을 봉사로 일관한 테레사 수녀의 말이다. 이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사랑의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다.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온정(溫情)의 손길이 늘고 있다. 길거리에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선냄비 옆에는 오랑우탄 인형이 기부 손길을 내밀어 주길 원하고 있다. 기부를 위한 스마트폰 속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또 사회 곳곳에서는 불우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렇듯 추운 날씨 속에서 요즘만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때도 없다.

동악도 예외는 아니다. 추운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동악에 ‘훈훈(薰薰)’한 온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행복과 사랑의 양념으로 담긴 김치

동국인이 이웃의 훈훈한 겨울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쳤다. 지난 26일, 만해광장이 행

복(幸福)을 버무리는 동국인으로 북적였다. 참사람봉사단과 KT&G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40여명의 재학생과 교직원 참여해 사랑의 양념이 더해진 김장을 담갔다. 서혜림(행정4)양은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동국인의 따스한 손길로 완성된 김장은 총 1500kg. 이번 김장은 ‘동지청소년의 집’과 ‘노숙자 쉼터’에 동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긴 채 전해졌다.

연탄 나르며 굶은 땀방울 ‘뚝뚝’

동국인의 온기(溫氣)는 다음 날(27일)에도 식지 않았다. 중구의 좁디좁은 골목길에 꼬불꼬불 검은 피가 등장했다. 님아 님아 중구 골목길 곳곳에 동국인들이 연탄(炭炭) 배달을 하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2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은 중구 만리

동, 장충동, 신당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등의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나르며 굶은 땀방울을 흘렸다. 전날 담근 김치도 함께 전달했다.

동국인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없어서 안 될 연탄을 한 장이라도 떨어뜨릴까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연탄을 날랐다. 이날 아들과 함께 연탄봉사에 참여한 경영대학 학사운영실의 김종애 직원은 “동국인이 한 마음이 돼 연탄을 배달했다”며 “동국인의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해진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김준철(경제3)군은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다”며 “우리가 배달한 연탄으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사람봉사단은 이날, 연탄봉사 외에도 우리대학 교직원이 모은 성금을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전달하기도 했다. 참사람봉사단의 민정희 팀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200명이 넘는 동국인들이 한 뜻을 모은 결과”라며 “다음에는 더 많은 동국인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동국인들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훈훈한 겨울을 맞고 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가정이 많다. 연탄 300장이면 한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의 이웃을 찾아 훈훈한 도움의 손길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인터뷰

영상공모전 문화부 장관상 수상한 이창수 (광고홍보3) 군

영상에 녹여낸 동국의 휴머니즘

최근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MBC에서 방영을 시작한 ‘아프리카의 눈물’은 ‘아마존의 눈물’에 이은 명품 다큐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SBS에서는, 톤드라의 유목민들을 현실감 있게 비춰낸 ‘최후의 톤드라’를 방영중이다. 이들 다큐멘터리가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사람들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다큐멘터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삶을 여과 없이 렌즈에 담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대학에도 위의 작품에 못지않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가 있다. 바로 ‘사랑의 향기, 동행’이라는 휴머니즘 다큐멘터리로 미래사회와 종교성연구원이 주최한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창수(광고홍보3)군이다. 이창수 군은 이번 작품을 제작한 계기에 대해 “주변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동국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앙도서관 경비 아저씨와 동국관 청소부 아주머니, 그리고 상록원의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아주머니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원래 학내에 친절하기로 소문난 경비 아저씨의 일상만 촬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밤을 지새워가며 취재하는 동안 다른 분들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결국 그는 청소부 아주머니와 생협 아주머니도 함께 촬영하게 됐다. 이창수 군의 첫 촬영은 결코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처음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아저씨, 아주머니를 방문했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을 마치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군은 “카메라 없이 아주머니, 아저씨를 찾아가 끊임없이 대화했다”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영상을 담아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제작 당시를 회상했다. 촬영을 허락해 달라는 끊임없는 그의 요청에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았다. 촬영 후반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촬영 아이디어를 내주기도 했다. 그는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후 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오셔서 영상 속 모습을 보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그가 우리대학 교육방송국(DUBS) 제작부장일 때 제작한 많은 작품 중 하나다. 그는 이번 작품이 “DUBS 동기, 후배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고 “나는 프로 듀서를 맡았던 스테프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모습은 매우 겸손했지만 주위에서 말하는 그의 실력은 대단했다. 동국대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했던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법한 ‘혁신동국’ 동영상 또한 그의 작품이다. 이창수 군은 이번 수상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이번 기회로 더 큰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DUBS 친구들,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주머니, 생협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창수 군의 꿈은 다큐멘터리 PD다. 그는 “훌륭한 다큐멘터리로 동국의 이름을 빛내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드러냈다. 그런 그의 바람처럼, 참신하면서도 훌륭한 휴먼 다큐멘터리로 동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창수 수습기자 jis@dongguk.edu

화제의 책

학생기자들이 발로 쓴 세계 대학 현지 르포



세계의 대학, 그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지은이 동국미디어센터 학생취재단
펴낸곳 동국대학교 출판부
14,000원 / 291쪽

우리대학 동국미디어센터 소속 학생기자들이 펴낸 ‘세계의 대학, 그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는 세계 고등교육 현장르포다. 2009년 기획돼 수 주간의 현장취재와 자료조사, 관계자 인터뷰등을 통해 집필된 이번 책은 대학교육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교육의 한 주체가 바라보는 세계 대학교육

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학생기자들은 베이징대, 뉴욕대, 교토대 등 세계 7개국의 11개 대학을 직접 선정하고 취재를 하며 느꼈던 각국 대학 교육의 특징과 우리나라 대학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UCL)편에서는 유럽 대학교육의 전통에 면면히 흘러 내려오는 튜토리얼 시스템을 살펴봤다. 교수와 학생을 이어 생생한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튜터와 이를 통한 개별면담학습은 유럽 교육의 강점이 어디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프랑스의 파리 4대학-소르본느 대학 편에서는무한경쟁이라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프랑스 인문학의 요람을 살펴본다. 타인과 경쟁하기 보다는 연대를 통해 스스로와 경쟁한다는 그들 특유의 교육철학을 들여다 보고 있다. 또, 미국의 뉴욕대 편에서는 우수 교수 스카우트 전략과 대학재정확보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컬럼비아 대학 편에서는 도심 캠퍼스의 특성화 전략을 살펴봤다. 특히 빈민가였던 할렘가를 거점으로 컬럼비아대가 보여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집중 취재했다.

그리고 아시아 대학중 최고의 연구능력을 자랑하는 홍콩대와 싱가포르국립대 편에서는 일상적인 영어강의와 엄격한 교수평가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대학들과 비교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이번 학생기자들의 취재는 대학서열화나 한국 대학가에 불어닥친 대학간 경쟁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대학들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며 스스로 고립되어 온 것은 아닌가 되묻고 있다. 또 이 책에서는 취재현장에서 느낀 경험담과 함께 각 대학의 교수나 학생을 직접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도 실고 있어 그 학교의 특성과 경쟁력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직접 찍은 세계 명문대의 화보와 함께 인터뷰와 취재영상을 담은 세계 대학 다큐멘터리를 담은 교육방송국 기자들이 제작한 DVD가 함께 실려 있어 생생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생기자들이 취재한 세계 각 대학의 입학 요건과 유학요령 등을 담은 자료도 함께 실어 실용서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신간안내

자치언론 기자들의 독립언론 취재보고서



교지 『동국(東國)』 64호
펴낸이 : 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펴낸곳 : 동국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비매품 / 75쪽

우리대학 교지편집위원회가 지난 달 18일 교지 ‘東國’ 64호를 발간했다. 지난 1986년부터 학교로부터 독립해 학생자치언론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교지편집위원회는 이번 호에서 ‘학교중이 땀땀’, ‘SOS’, ‘마음의 목소리’라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했다. ‘東國’은 기성세대가 아닌 대학자치언론기자의 시각을 통해 학내·외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바라보고 서술한다. 이번 호에서는 민감한 소재인 바이오시스템대학 캠퍼스 이전 문제를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특집으로 다뤘으며 2010 언론사 대학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東國’은 일반 학생들의 소소한 이야기거리도 다루고 있다. 이번 ‘학우투고’란에서는 졸업을 앞둔 학생의 여행기를 통해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지편집위원회는 현재 대학본부가 등록된 교지에서서 교지대 항목을 삭제해 아무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발행예산 전액을 광고영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그래서 교지 ‘東國’은 갈수록 책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언제쯤 많은 학생들의 관심속에 교지 ‘東國’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지 발간을 위해 분투하는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다.